

INCHEON

2004 | 08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준공

당일치기 물놀이 코스

앞바다 해수욕장 · 풀장 즐기기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기업 메세나(mecenat)를 통한

제1회

인천 물놀이 사진 공모전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 작품주제 : 인천지역의 물을 소재로 한 생활 · 자연환경 사진으로 물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
- 출품규격 및 수량 : 11"×14" (컬러 · 흑백사진, 장정불요) 1인당 3점 이내
- 접수기간 : 2004년 9월 1일(수) ~ 9월 20일(월)
- 접수 및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8층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440-151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1062하이베라스-D-712 인천녹색연합 ☎548-6274
- 심사결과발표 : 2004년 10월 8일(금)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인천일보(www.incheontimes.com)
인천녹색연합(www.greenincheon.org) 홈페이지 게재

■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일반부문(대학생 포함)			학생부문(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300만원	대상	1점	상장 및 노트북
금상	2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상	2점	상장 및 디지털카메라
은상	4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은상	4점	상장 및 MP3
동상	8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상	8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10만원)
입선	30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입선	40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3만원)

※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료는 없습니다.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일보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Alcomatium INI STEEL 주관 : 인천녹색연합
후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2004. 9. 1 ~ 9. 20

www.incheon.go.kr | www.greenincheon.org



인천의 아들 딸 아크로폴리스에 태극기 휘날린다



제 28회 올림픽이 8월 13일부터 고대올림픽의 발상지이자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이 열렸던 '신화의 땅' 아테네에서 열린다. 2004 아테네 올림픽에는 인천출신 혹은 인천경기단체 및 연고팀 소속선수 약 20명의 태극전사들이 메달에 도전한다.

우승을 노리는 축구팀에는 부평고 출신 3인방 최태욱(인천FC), 이천수(레알 소시에다드), 김남일(전남)이 뛰고 여자농구에는 정미란, 김지

윤(인천 금호생명)과 인성여고 출신 이종애(우리은행)가 코트를 누빈다. 이밖의 구기종목에는 여자하키 임주영(부평여고), 남자핸드볼 한경태와 최승욱(이상 정석항공고), 여자핸드볼 이상은(선화여상) 등이 각각 출전한다.

금메달 발인 양궁에는 계양구청 서거원 감독을 비롯해 명궁사 박경모(계양구청)가. 사격에는 김정미(남구청)가 각각 금빛 과녁을 겨냥한다. 격투기 종목인 여자유도에는 이복희와 최숙이(이상 동구청)가, 레슬링에는 산

곡중과 인천체고 출신의 임대원(삼성생명)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밖에 역도에서는 운산공고 출신 안용권(한체대)이 무제한급에 출전하고 펜싱 에페 부문에 인천체고출신 이상엽 선수가 메달 획득 선봉에 나선다.



06



14



34



36

02窓 2004 | 아테네올림픽

04 '벤처의 진주' 우뚝 서다

06 인천200% 즐기기 | 당일치기 물놀이 코스

10 in. Stage | 소리극 <배 띄워라> 외

14 ① 도자기체험

17 야~ 여름방학이다 ② 염전 · 생태체험

20 ③ 여름방학캠프 이모저모

22 굿인천 굿뉴스 | 을왕 · 왕산 · 십리포해수욕장 통수 외

27 Now 인천 |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보고

28 의정소식 |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제13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

29 브리핑 |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

30 차한잔 | 베트남 하이퐁시 파견 공무원 민하이씨

31 과거로의 시간여행 | 3년이라는 시간... 그뎌 나를 잊을까

32 청공청해 인천의제 21 뉴스 | 남은 음식물 담아가기 운동 외

33 조명 | 인천스토리텔링 사업

34 함께 나누는 세상 | 남구여성자원봉사대

36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⑦ | 영종도 용궁사 (시 유형문화재 제 15호)

40 맛 vs 맛 | 인천의 3면(麵)을 말한다

44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 여덟번째 사람 | 탁경란 씨

48 Youthzine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교기업

49 Healthy life | 당뇨병

50 독자마당 | 이달의 테마 '나의 여름나기'

54 Info Box | 해외이민 관련사진 및 유물자료 모집 외

59 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④ | 노희정 <홍예문>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8 (통권 128호)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8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박상영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공보관실) · 김성환 · 김정식(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녹음이 짙어가는 용궁사 가는 길



‘벤처의 진주’ 우뚝 서다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준공



연수구 동춘동 994. 꿈의 신천지 송도신도시에 드디어 거대한 빌딩이 우뚝 솟았다. 연면적 8천166평,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의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 ‘갯벌타워(Get Pearl Tower)’가 지난 7월 8일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안상수 시장,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진주를 캐는 곳(Tower to get pearl)’이란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갯벌타워는 인천지역 벤처산업의 상징물이자 송도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빌딩에는 전자·정보기기산업,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정밀기계)산업, 신소재산업, IT산업 등 약 60여개의 첨단기업이 등지를 틀게 된다. 또한 송도와 영종·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외국 투자가 등에게 소개할 전시관은 21층에 문을 연다.

유망 벤처기업에 기술 지원 등을 하는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는 이곳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해외 첨단 기업과의 공동연구, 해외시장 개척, 벤처펀드 알선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갯벌타워 인근에는 입주 업체들과 관련이 많은 지원 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생산공정기술본부, 신소재본부, 생산기반기술본부를 포함한 ‘인천연구센터’가 있다. 또한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시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인천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가까이 있다.

이제 갯벌타워에서 알차고 영롱한 벤처 사업의 ‘진주’가 자라기 시작했다.

하루 해로도 충분한 여름의 ‘끝맛’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가 싫더니 어느새 여름의 꼬트머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여름이 다 저물기 전에 어서어서 더위 맛을 보러 떠나자. 하루 해로도 충분히 달콤한 여름의 끝맛.

가족끼리 _ 갯벌 탐험하러 가는게...

모처럼 시간을 쪼개 길을 나선 가족들이 피서를 제대로 즐기려면 날씨가 뱃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앞바다가 제격이다. 게다가 놀거리가 많다면 금상첨화. 물이 들어오면 물놀이를 하다가 물이 빠지면 갯갯을 할 수 있는 바다는 하루 해 동안에 가족들에게 쉬지 않고 놀거리를 마련해준다.

강화의 **동막해수욕장**은 물이 들면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근채 해수욕을 즐기다가 싫증이 나면 모래찜질을 하면 된다. 그러다 물이 빠지면 아빠는 아이들에게 비닐봉지를 하나씩 들게 하고 갯벌탐험에 나선다. 그 사이 엄마는 머드팩을 즐길 일이다. 진흙을 온몸에 바르고 그늘에서 쉬다가 물이 들어와 갯벌로 나갔던 가족이 돌아올 즈음해서 씻어내면 고운 피부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근처에는 **함허동천 야영장**이 있어 하룻밤 텐트를 치고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도 좋다. 영흥도의 **십리포와 장경리해수욕장** 역시 마찬가지다. 십리포엔 소사나무가 있어 특이하고 장경리에는 솔숲이 펼쳐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도 제격이다.

세 섬 모두 차를 타고 갈 수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바다이다. 다만 차가 막히면 즐거움이 짜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서 일찍 돌아오는 것이 좋다.



1 영흥도 2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3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4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5 무의도 실미해수욕장 6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

친구끼리 _ 열정적인 바다 즐기는게...

젊은 친구들에겐 다소 시끌벅적하긴 해도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열정적인 바다가 제격이다. 중구 인천국제공항 옆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가장 빨리 닿을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는 장점 이외에도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 피서지가 갖추어야 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바다라 좋다. 이곳의 해변은 여름철에는 늘 축제처럼 들떠있다. 고운 모래가 펼쳐진 해변은 언제 걸어도 근사한 분위기를 잡을 수 있고 일몰시간과 가깝다면 발장게 물들어 있는 운치 있는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을왕리와 5분 거리로 떨어져 있는 **왕산해수욕장**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을왕리가 정열적이라면 왕산은 소박하다. 바닷가에 몇몇 횃집 외에는 별다른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아 조용하고 한적한 편이다. 모래 굴기도 곱고 물이 제법 깊어서 파도가 세차게 치면 귀로도 시원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은 수십년 동안 사랑받아 온 국민휴양지답게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바다이다. 드넓은 바다에서는 무얼해도 다 어울린다. 물놀이를 해도 좋고 갯갯도 좋고 바다낚시도 그만이다. 바다에서 노는게 지루해지면 자전거를 빌려서 해수욕장 일대를 한바퀴 둘러보는 것도 재밌다. 쾌속선으로 아침 일찍 들어가서 너댓시간 놀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면 된다. 배도 타보고, 해수욕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안개가 끼는 등 날씨가 좋지 않으면 결항 될 수 있기때문에 미리 연락해봐야 한다. (문의 : 우리고 속웨리 887-2891~5)

연인끼리 _ 낭만적인 영화의 무대로 ...

바다에 가면 누구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왕이면 실제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에 가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연인끼리라면 함께 영화나 비디오를 감상한 뒤 촬영지에 놀러가서 주인공처럼 바다를 뛰어다니는 것도 신나겠다.

웅진군 북도면 시도에 있는 **수기해수욕장**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드라마스페셜 ‘풀하우스’의 세트가 세워져 눈길을 끈다. 물론 최고의 인기스타 송해교와 비가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수기해수욕장의 때문지 않은 아름다운 풍광이 드라마를 더욱 빛내고 있다.

중구 무의도 **실미해수욕장**은 영화 ‘실미도’의 실제 현장이자 촬영지인 실미도를 가볼 수 있는 곳이다. 실미해수욕장의 드넓은 모래사장에서 해수욕도 하고 모래찜질도 하면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 실미해수욕장에서 실미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바닷길이 열린다. 코앞이긴 하지만 갯벌이라 걸어서 가는데 10분 남짓 걸린다. 현장에는 막사 등 세트는 온데간데 없지만 훈련병들이 혹독하게 훈련받던 바닷가의 운치는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현장을 둘러본 뒤 물이 다시 들어오기전 서둘러 나오면 된다.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은 sbs드라마스페셜 ‘천국의 계단’의 촬영지이다. 드라마가 끝난지 오래 되었지만 하얀 빛으로 세워진 세트가 바닷가를 내려다보고 서있어 여운을 즐기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대이작도**는 영화 ‘섬마을 선생’의 촬영지로 이름나 있다. 1967년에 제작된 영화이지만 아직도 영화의 추억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이 심심치 않게 섬을 찾는다. 부두에서 오백보쯤 떨어진 곳에 서있는 ‘문화소나무’나 섬마을 선생님이 근무했던 ‘자월초등학교 계남분교’도 찾아볼 수 있다.

덕적도와 소야도는 수채화처럼 스토리와 영상이 모두 아름다운 영화 ‘연애소설’의 배경이 되어준 곳이다. 차태현, 이은주, 손예진 등의 배우가 함께 여행을 떠나 해변가에 누워 하늘을 향해 웃음짓던 그곳이 바로 소야도의 백사장이다. 무인도인 **시승봉도**는 인천 출신의 배우 황신혜 주연의 영화 ‘패밀리’의 배경이다. 극중에서 림살롱 마담으로 분한 황신혜가 조폭들에 의해 섬에 갇히게 되는데 별장세트가 바로 시승봉도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들어섰다. 아침에 일찍 나서 현장에 가서 풍취를 느껴보고 해질녘에 돌아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섬들이다.



글 _ 박상영 · 사진 _ 김성환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 전경

이런 피서 어때요

‘풀’에서 ‘쿨’하게~

피서는 가야겠고, 하지만 멀리 길 떠나는게 영 부담스럽고...

그런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야외수영장이다.

인천에는 시내는 물론 강화와 영종도에 하루 놀이터로 적당한 야외수영장이 여러 곳 있다.



청학풀장 _ 수영도 하고 문학산의 맑은 공기도 쏘일 수 있는 수영장이다. 연수구 청학동에 있다. 7월 10일 개장해서 8월 22일까지 운영된다. 나무 그늘이 많아서 시원하다. 영아, 유아, 성인 등 세 개의 풀이 있다.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이 깨끗한게 장점이다.

문의 _ 832-2219 **이용요금** _ 대인 7,000원, 소인 4,000원

송도해수욕장 풀장 _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에 가면 풀장과 해수욕장 그리고 물썰매장을 두루두루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세 곳 모두 7월 10일 개장해서 8월 말까지 운영한다. 풀장은 대형풀과 유아풀 두 곳이 있다. 송도유원지 안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다. 매점이나 음식점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문의 _ 832-0015 **이용요금** _ 풀장권 성인 7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4천원권을 끊으면 해수욕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물썰매장권 성인 1만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 7천원.



서구 쌍생 물썰매장 풀장 _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쌍생물썰매장은 폭이 36m, 길이가 무려 123m에 이르는 슬로프를 갖추고 있다. 누구나 한번만 내려오면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 아이와 함께 탈수도 있다. 풀장을 비롯해 스넥하우스와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과 의무실 등도 갖추고 있다. 8월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_ 565-3483, 560-4945 **이용요금** _ 대인 7천원, 청소년 5천원, 소인 4천원

계산자연 수영장 _ 계양산 자락에 걸쳐 있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 게다가 취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돗자리와 취사도구를 챙겨오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대인풀과 유아풀이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다.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과 경인교대역 사이에 있다. 경인교대 역에서 10분 거리. 7월 1일에 개장해서 8월 말까지 운영된다. 주차는 300대 정도.

문의 _ 545-3700 **이용요금** _ 대인 6천원, 소인 4천원.

우래정 수영장 _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에 있어 주위 경관이 좋다. 물은 지하온천수라 그렇게 차지 않아 수영을 하기에 딱 좋다. 주변에 장흥저수지와 낚시터가 있어서 함께 즐길 수 있다. 수영장 옆에 운동장이 있어 배구나 족구도 가능하고 민박도 할 수 있다. 수영장 안에서는 취사도 할 수 있다. 한걸음만 더 가면 전등사, 광성보, 동막해수욕장, 정수사 등을 즐길 수 있다. 7월 초에 문을 열고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

문의 _ 937-3300, 5959. **이용요금** _ 대인 5천원, 소인 4천원

강화가족호텔 수영장 _ 강화군 길상면 강화가족호텔 안에 있다. 대형풀과 유아풀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영장 물이 맑고 차갑다. 수영장 안에서 취사는 할 수 없지만 스넥바가 있기 때문에 허기를 때울 수는 있다. 가족호텔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시설은 넉넉한 편이다. 7월 10일 문을 열어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

문의 _ 937-5071~3 **이용요금** _ 대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안젤라 수영장 _ 중구 중산동(영종도)에 있는 역사가 꽤 오래된 수영장이다. 수영장 외에도 숙박시설, 야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도 인기이다. 7월 17일 개장해서 8월 말까지 운영된다. 어른풀, 중간풀, 유아풀 세가지가 있는데 풀장 안에는 큰 미끄럼틀이 두 개 있다. 물놀이 외에도 텃밭에서 감자캐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미니동물원에서 타조, 개, 토끼, 닭, 오리, 비둘기, 칠면조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도 가능하고 운동장에서 족구와 농구 등도 즐길 수 있다. 단체의 경우에는 식사를 해주기도 하고 개인은 취사가 가능하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면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의 _ 747-0177 **이용요금** _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7천원, 5세부터 초등생까지 5천원.

소 리 극 배 띄워라

〈배 띄워라〉는 전통적 양식의 총체적 소리극이며 시 청각적인 연극의 요소가 가미된 무대로, 무형문화재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인 국악인 김국진씨가 공연한다. 우리의 춤과 몸짓, 소리를 더해 건전한 놀이문화의 터전을 마련하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고 신명나게 관객과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볼 수 있는 창작 소리극이다.

일곱마당으로 꾸며지는 이 작품은 서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조그만 포구를 배경으로 어부들의 생활을 그린 것이다. 뚝단배에 몸을 싣고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 모진 풍랑 속에 하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가족의 품에 안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부의 삶을 그린 것이다.

일시 _ 8월 28일(토) 오후 3시, 6시
티켓 _ 전 석 10,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김국진 국악원 (818-5721)

어 린 이 영 어 뮤 지 컬 The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



지난 94년 창단과 동시에 시작하여 꾸준한 무대공연을 펼쳐온 극단 '십년후'의 영어연극은 교육효과 면에서 영어라는 '기능'과 연극을 통한 '인성'의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배운 영어를 직접 활용하는 장으로 연극 무대를 활용,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활용할 기회가 된다. 이번 공연에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출연한다.

극단 '십년후'의 열여섯 번째 어린이 영어연극 〈오즈의 마법사〉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린 도로시가 오즈라는 마법의 나라로 오게 되면서 경험하는 환상과 모험을 그린 작

품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도로시에게 마법사는 나쁜 마녀 베린다로부터 금빛 모자를 가져오라고 한다. 베린다를 찾아가는 도로시와 친구들은 그녀의 마법에 걸려 많은 고생을 하지만 물을 싫어하는 베린다에게 물을 뿌려 위기를 벗어난다. 또한 도로시 친구들의 소원인 뇌와 심장과 용기를 얻게 된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수업에 들어가는 극단 '십년후'의 열일곱 번째 어린이 영어연극 작품은 〈일곱가지 수수께끼〉로 공연장에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은 인천지역 초등학생으로 간단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며, 매주 2회 2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진다.

일시 _ 8월 13일(금) 오후 7시, 14일 오후 3시, 5시
장소 _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티켓 _ 5,000원
문의 _ 극단 '십년후' 영어연극팀(514-2050)



오즈의 마법사 **20%** 할인권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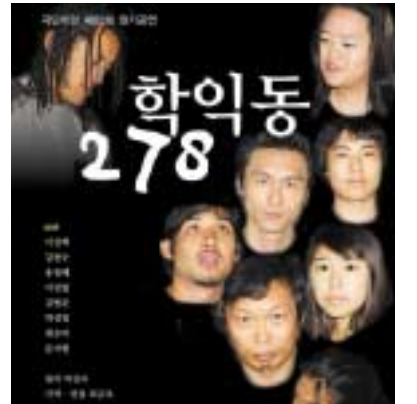
극 단 마 임 학익동 278

〈학익동 278〉은 연극, 마임, 음악 등의 세 가지가 어우러져 무대예술의 미학을 보여준다. 인천 지역의 실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리얼리즘적 그리고 마임적인 극 연출로, 새롭고 독창적인 또 하나의 〈학익동 278〉을 창조한다.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서 뜨거운 입김을 내쉬며 인간의 절실함을 움켜쥐며 살고 있는 그들, 교도소의 미결수들이다. 미결 감방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굳이 사방이 벽으로 감혀있지 않아도 삶과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 마주하고 선 인간의 내면세계와 소시민의 애환을 담고 있다. 대학교, 창녀촌, 교도소가 공존하고 있는 인천 학익동! 평범하지 않은 곳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놀이와 해학을 통해 긍정적으로 치유해 가는 삶의 생명력을 기초로 구성된 작품이다.

일시 _ 8월 17일(화) ~ 8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여성의 광장 공연장 (연수구 동춘동 소재 · 815-7103)

티켓 _ 일반 10,000원, 학생 7,000원, 단체 4,000원 문의 _ 극단 마임 (772-7631)



우 광 혁 교 수 의 청 소 년 음 악 회 세계 악기여행



세계 60여개 나라의 악기 100여 점을 직접 보여 주고, 그 악기로 그 나라의 음악을 들려주는 월드뮤직콘서트이다. 고대 문명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악기, 자연에서 채취한 악기 등 수만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악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기능의 악기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이다.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이 연주되며 그 나라의 독특한 악기의 음식과 민요가 한데 어우러져 시공을 초월한 환상의 무대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 이 음악회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스탭진이 선정된 인기 프로그램으로 뽑히기도 했다.

일시 · 장소 _ 8월 18일(수) 오후 3시, 6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8월 20일(금), 21일(토) 오후 3시, 6시(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0,000원, 7,000원

공연예매 _ 엔티켓(www.enticket.com) 1588-2341

문의 _ 813-8040

음 니 버 스 마 술 극 매직버스

〈매직버스〉는 마술과 드라마를 결합한 유니버스 마술극이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마술을 새로운 공연예술로 연출하여 마술, 춤과 노래 그리고 극적 스토리를 더해 환타지한 마술극으로 탄생시켰다. 단순히 단발성 이벤트 행사장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마는 기존의 마술 구성에서 탈피하여 연극적 스토리, 뮤지컬적 안무와 노래, 환상적이고 수준 높은 마술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한걸음 다가갈 것이다.

총4막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사랑과 감동, 웃음과 공포로 이루어져 각기 다른 분위기의 네 정거장을 거치게 된다. 매 정거장마다 환상적인 마술의 신비함과 개성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들의 매력을 한껏 맞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니버스 마술극 매직버스의 종착역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드라마틱한 교감이며, 관람을 뛰어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삶과 생활의 달콤한 상상인 것이다.

일시 _ 8월 28일(토)까지 평일 오후 2시, 5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과 월요일 공연이 없음)

장소 _ 소극장 보물상자 (연수구 선학동 소재) 티켓 _ 전석 10,000원 (예매 / 엔티켓 www.enticket.com)

문의 _ 818-5665



가 족 뮤 지 켈 콩쥐팥쥐

서양에 신데렐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콩쥐가 있다. 온갖 고난을 이기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모두 행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동서양 어디서나 추구하는 테마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뮤지컬화 한 것이다.

팥쥐와 팥쥐 엄마는 콩쥐에게 하루종일 해도 다 할 수 없는 만큼의 일을 시킨다. 그래도 부지런한 콩쥐가 다 해내자 이번에는 나무 호미로 돌밭을 매라고 하고 밀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한다. 그러나 콩쥐는 황소와 두꺼비의 도움을 받아 거뜬하게 일을 해치운다. 어느날 왕자님이 신부감을 뽑기 위하여 잔치를 여는데 심술궂은 팥쥐와 계모는 콩쥐에게 나락을 떨어 놓으라며 데려가지 않는데…

일시 _ 8월26일(목) 오전 10시20분, 11시30분, 오후 3시30분, 4시40분

티켓 _ 일반 10,000원, 할인 5,000원

장소 _ 인천종합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사랑극단 <꼬마세상> 572-4281

청 소 년 을 위 한 클 래 식 음 악 회 스페니쉬 브라스 킨텟



스페니쉬 브라스는 1996년 프랑스 Ville de Narbonne에서 개최된 제 6회 국제 Brass Quintet competition에서 1등상을 수상했으며 Spanish Chamber music Competition of Young Musicians에서 우승했다. 1990년 창단 이후로, 이들은 스페인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수석 멤버가 되었다.

SPANISH BRASS의 Luur-Metalls는 전위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개척하는데 전념해왔다. 그들의 활동은 Brass용 실내음악에 한정된 곡들과 Brass quintet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곡들,

다양한 국제적 라디오 방송들을 위한 녹음을 포함한 CD 레코딩과 전 세계를 순회하는 연주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시 _ 8월 19일 오후 3시, 6시

티켓 _ 전석 7,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420-2717

정 경 화 의 초원의 꽃

‘초원의 꽃’은 세상의 꽃이자 나의 꽃이자 꽃이 된 나를 의미한다. ‘나’는 독특성을 지닌 차별화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되어지는 꽃이 되어지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보낼 수 있는 관계가 지어짐을 의미한다. 작품은 한편의 영화처럼 진행된다. 천지창조가 연상되듯 암전 속에 스크린에 빛이 나오며 애니메이션이 시작된다. 7일의 기적이 보여지고 그것은 현실의 무대 공간에서 움직임을 통해 보여진다.

일시 _ 8월29일 오후 4시

티켓 _ 10,000원/ 7,000원

장소 _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017-781-2266



어느날 왕자님이 신부감을 뽑기 위하여 잔치를 여는데 심술궂은 팥쥐와 계모는 콩쥐에게 나락을 떨어 놓으라며 데려가지 않는데…

일시 _ 8월26일(목) 오전 10시20분, 11시30분, 오후 3시30분, 4시40분

장소 _ 인천종합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사랑극단 <꼬마세상> 572-4281

청 소 년 을 위 한 클 래 식 음 악 회 스페니쉬 브라스 킨텟



스페니쉬 브라스는 1996년 프랑스 Ville de Narbonne에서 개최된 제 6회 국제 Brass Quintet competition에서 1등상을 수상했으며 Spanish Chamber music Competition of Young Musicians에서 우승했다. 1990년 창단 이후로, 이들은 스페인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수석 멤버가 되었다.

SPANISH BRASS의 Luur-Metalls는 전위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개척하는데 전념해왔다. 그들의 활동은 Brass용 실내음악에 한정된 곡들과 Brass quintet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곡들,

다양한 국제적 라디오 방송들을 위한 녹음을 포함한 CD 레코딩과 전 세계를 순회하는 연주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시 _ 8월 19일 오후 3시, 6시

티켓 _ 전석 7,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420-2717



어느날 왕자님이 신부감을 뽑기 위하여 잔치를 여는데 심술궂은 팥쥐와 계모는 콩쥐에게 나락을 떨어 놓으라며 데려가지 않는데…

일시 _ 8월26일(목) 오전 10시20분, 11시30분, 오후 3시30분, 4시40분

장소 _ 인천종합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572-428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	16	17	18	19	20	21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2	3	4	5	6	7
<p>애니메이션 영화 <남자는 돼지 - 해적 마테오> 10시 15분 11시 40분, 오후 1시15분 2시150분 4시25분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일반: 7,000원 6,000원 할인: 6,000원 5,000원 583-2631~2</p>	<p>성극 <용서를 베푼선 사랑> (~11)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4시 7시 30분 계양문화회관 25,000원</p>	<p>인천챔버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오후 7시 3시 6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438-6040 제12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18)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84 극단 마미 <학익동 278> 공연(~20) 오후 7시 / 여성회관정 소극장 772-7361</p>	<p>인천문화예술회관 제19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 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511-5165 기획공연 <우광혁 교수의 청소년 음악회> 오후 3시 6시 /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일반: 10,000원 단체: 화원: 7,000원 583-2361</p>	<p>여름영화 청소년음악회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17 제45회 금요예술무대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7시 가족뮤지컬 <인어공주>(~22) 12시 2시 4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8,000원 7,000원 / 017-208-1369</p>	<p>민은숙 서양화전 8월 10일~15일 신세계 갤러리 제29회 인천서양화전 8월13일~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한·중 수채화 교류전 8월13일~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천 수채화 협회전 8월13일~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0년전 사진전 8월 17일~25일 신세계갤러리 박상과 일상전 8월23일~28일 부평구청전시실 인천미협 <현대미술오늘전> 8월27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제16회 미소화전 8월27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도자기 축제 8월 27일~9월 5일 신세계 갤러리</p>	<p>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무로 / 420-2788 월드음악신문 피아노콩쿨 10시 오후 1시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로 583-2361</p>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	23	24	25	26	27	28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9	30	31	1월	2월	3월	4월
<p>일본 기타쿠스 소년소녀합창단 초 청 <인천영고릴 제17회 정기공연> 6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000원 7,000원 5,000원 519-8874</p>	<p>인천음악협회 제1회 팝콘서트 오후 7시 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000원 7,000원 5,000원 876-8646</p>	<p>인천문화예술회관 제19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 3시 6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511-5165 기획공연 <우광혁 교수의 청소년 음악회> 오후 3시 6시 /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일반: 10,000원 단체: 화원: 7,000원 583-2361</p>	<p>여름영화 청소년음악회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17 제45회 금요예술무대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7시 가족뮤지컬 <인어공주>(~22) 12시 2시 4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8,000원 7,000원 / 017-208-1369</p>	<p>미추홀 성안면군회 <독일가곡과 아리아의 밤>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016-451-8475</p>	<p>경서도 소리창극 <배 띄워라> 오후 3시 6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000원 / 818-6721 임경미 현대무용단 <현대물 실험무대>(~29) 오후 8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무로 / 011-795-2196</p>	<p>동아아트홀(부평점) 522-7002 김스아트홀(인천점) 434-7008 임마젓아 심민리(뮤지컬) 장화신은 고영이(뮤지컬) 피터팬(뮤지컬) 인어공주(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나장(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나장(뮤지컬) 초등: 3,000원, 유치원: 2,000원(20인 이상), 단체: 2,500원(20인 이하 단체)</p>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9	30	31	1월	2월	3월	4월
<p>뉴인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름영화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여행> 오후 7시 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5,000원 3,000원 011-301-2898, 888-0807 정경희의 <초원의 꽃> 오후 4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7,000원 / 017-781-2266</p>	<p>인천음악협회 제1회 팝콘서트 오후 7시 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000원 7,000원 5,000원 876-8646</p>	<p>인천문화예술회관 제19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 3시 6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511-5165 기획공연 <우광혁 교수의 청소년 음악회> 오후 3시 6시 /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일반: 10,000원 단체: 화원: 7,000원 583-2361</p>	<p>여름영화 청소년음악회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17 제45회 금요예술무대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7시 가족뮤지컬 <인어공주>(~22) 12시 2시 4시 /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0,000원 8,000원 7,000원 / 017-208-1369</p>	<p>미추홀 성안면군회 <독일가곡과 아리아의 밤>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016-451-8475</p>	<p>경서도 소리창극 <배 띄워라> 오후 3시 6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000원 / 818-6721 임경미 현대무용단 <현대물 실험무대>(~29) 오후 8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무로 / 011-795-2196</p>	<p>동아아트홀(부평점) 522-7002 김스아트홀(인천점) 434-7008 임마젓아 심민리(뮤지컬) 장화신은 고영이(뮤지컬) 피터팬(뮤지컬) 인어공주(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나장(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나장(뮤지컬) 초등: 3,000원, 유치원: 2,000원(20인 이상), 단체: 2,500원(20인 이하 단체)</p>

※ 공연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쪼물딱 쪼물딱 ‘신의 손’ 돼볼까?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마니산자락에 자리 잡은 마니산초등학교. 마을 깊숙이 등지를 튼 학교 안으로 들어 서면 운동장에 무성히 자란 풀들이 이미 폐교가 된 학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건물로 눈을 돌리면 폐교라고는 할 수 없는, 오히려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퍼져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건물 앞에는 20여점의 조각품들이 전시돼 있고, 스피커에서는 아르페지오네소나타 같은 은은한 선율이 흘러 나온다. 이곳은 국립강릉대학교 산업공예학과 김미옥 교수가 운영하는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이다.

강화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김 교수는 폐교가 된 마니산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임대해 학교 분위기와 시설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인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의 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이곳에 초등학교의 교실과 집기들을 이용해 300명이 동시에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는 4곳의 도예실을 비롯해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 교실을 개조한 갤러리, 연구실 등을 꾸몄다.

방학을 일주일여 남겨놓은 7월의 어느 날, 강화 석모도의 해명초등학교 4, 5, 6학년 18명의 학생들이 이곳으로 도자기체험을 나왔다. 책상 두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4개의 작업대 위에는 아이들을 위한 도자기 흙과 물그릇이 얹혀져 준비돼 있다. 자기 뭉의 흙을 받은 아이들은 탕탕 쳐보기도 하고, 손으로 살살 만져보기도 하면서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다.

18명의 학생을 위해 강의를 맡은 김 교수는 “도자기가 뭘까”라는 질문으로 체험 수업을 시작했다. “그릇이요” “사기요” 제각각의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손은 어느새 흙으로 가 있다. 다소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탓일까? 김 교수는 “도자기는 오징어예요”라는 엉뚱한 얘길 꺼낸다. 물오징어가 마르면 작아



1 아이들에게 도자기 만들기를 설명하고 있는 김미옥 교수 2 갤러리 3 야외의 조각품들 4 코일링기법으로 도자기 만들기에 열심인 어린이 5 해명초등학교 조필기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아이들의 기념촬영

지고, 불에 구우면 더 작아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흙에 물을 묻혀 도자기를 만든 후 그늘에서 천천히 말리면 약 5% 정도가 줄어들고, 이것을 불에 구우면 다시 5%가 작아진단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만들 것은 코일링기법(말아쌓기기법)을 이용한 연필꽃이. 송편을 빚듯 흙을 주물러 둥글게 밀반침을 만들고 다시 가래떡처럼 흙을 길게 말아서 이것을 밀반침 위에 말아서 쌓아올리면 근사한 연필꽃이도 되고, 수저통도 된다.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저마다의 크기, 저마다의 모양으로 차곡차곡 흙을 쌓아 올렸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 4학년 최보람 어린이에게 재미있느냐고 물었더니 “미술시간보다 훨씬 재미있어요”라며 활기차게 대답한다. 콧등을 찡그리며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 5학년 최유현 어린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작품에 둥글게 무늬를 넣기도 해 “소질이 있네. 강릉대학으로 와라”며 교수님의 칭찬을 듣기도 했다.

다 만든 작품에는 바닥에 각자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작품은 그늘에서 잘 말린후 초벌, 재벌구이를 거쳐 개인에게 보내준다. 예쁜 작품을 만든 5학년 김석란 어린이는 “꽃병으로 쓸거예요”라며 뿌듯해 한다.

작품 만들기를 마친 아이들은 모두 갤러리로 향했다. 이곳에는 김 교수의 30년간의 작품세계가 펼쳐져 있다. 30여점의 도자기는 그동안 터키, 이집트, 이탈리아 등에서 전시되었던 작품들이다. 김 교수는 상감기법으로 무늬를 넣은 작품, 자연을 닮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 등 자신의 예술 세계를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갤러리에는 고풍스런 피아노도 한 대 자리잡고 있다. 미술 작품 전시 뿐만 아니라 작은 음악회도 열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배려란다. 5학년 박은지 어린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채르니의 곡을 연주하자 어느새 갤러리는 작은 무대가 된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 건물 밖으로 나오니 들어올 때는 몰랐던 조각 작품들이 아이들 눈에 띈 모양이다. 아이들은 우르르 작품으로 몰려가 희희낙락 감상을 한다.

만들고, 웃고, 떠들고, 감상하고... 오늘 아이들이 체험한 도자기 만들기는 교실에서 는 미처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의 한 단면이었을 것이다.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성환



Info box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을 이용하려면...

- ① 개인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예약을 통해 이뤄진다. (937-9320, 011-332-1117) ② 도자기체험의 강사는 현 미술대학 교수 및 대학강사, 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 ③ 교사내의 실습장에서 약 300명, 야외실습장에서 300~400명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다. ④ 내용은 전통과 현대 도예에 대한 이론 강의와 재료지급 → 성형지도 → 1차소성(초벌구이) → 유약시유 → 2차소성(재벌구이)로 이뤄지는 실기지도로 구성된다. (도자기 실습 : 1점 5,000원 제작) ⑤ 기타행사로 미술전시회와 각종 문화행사도 가능하다 (전시 관람료 : 1,000원) ⑥ 숙박을 원하는 경우, 관사를 개조한 3개의 방에서 20~30명이 머물며 세미나 등도 할 수 있다.

찾아가는 길 _ 초지대교를 지나 초지삼거리에서 좌회전해 마니산 방향으로 간다. 두 번째 사거리에서 덕포리방면으로 좌회전하면 10분 만에 한국강화문화예술원이라는 이정표를 만날 수 있다. 이정표를 보고 마을로 좌회전해 들어가면 덕포마을이다. 강화 읍쪽에서 오면 마니산국민관광지 주차장에서 덕포리 방면으로 2.8km 지점에 있다.

도자기의 모든 것 인성도예원



도심에서도 손쉽게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남동공단에 자리 잡은 인성도예원이 그곳이다. 이곳은 도자기를 빚는 국내 작가들 사이에서는 도자기 원료(흙·유약 등)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인성제토'로 잘 알려진 곳. 때문에 인성도예원에서는 도자기의 원료 생산에서 만들기, 굽기 등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견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모양의 도자기도 구입할 수 있다.

이론 강의와 실습을 위해 한 층을 더 올려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은 말 그대로 도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1층에는 대형가마가, 2층에는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가,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는 100명 이상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체험장이 설치돼 있다.

인성도예원에서는 시청각 강의를 통해 도자기 제조 공정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고 전문 강사진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성인, 가족 등 수준에 맞게 다양하다. 월별체험학습도 마련해 손성형과 물레의 기초부터 중·고급 손성형과 다양한 장식기법까지 익힐 수 있다.

일일체험의 경우 개인이나 가족 단위 일때는 2~3일전 예약(월요일 제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30명 이상의 단체일 경우는 1주일 내내 어느 요일이나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체험 참가비는 성인(대학생 이상) 1만2천원, 유치원~고등학생이 1만원이며, 단체일 때는 9천원이다.

문의 _ 인성도예원 (www.2000pottery.com / 818-3478~9)

찾아 가는 길 _ 인천지하철을 이용해 동춘역에 내리면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동춘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서틀버스가 운행한다. 시내버스 27, 3, 34 좌석버스 103, 105-1 마을버스 13번을 이용해서도 동춘역에 내릴 수 있다.

정신 수양도 함께 무애원



강화군 화점면 부근리에 자리 잡은 무애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포교원이지만 그것보다 설봉스님과 도자기로 더 많이 알려진 곳이다. 특히 학생들의 단체 도자기 체험장으로, 청소년 전통문화 수련원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설봉스님의 도자기교실에는 '흙은 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다주는 정직한 매개체로서, 그 성질을 이해하는 과정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닦아가는 수행의 과정이자 자주의식 함양의 과정'이라는 정신이 녹아있다. 흙을 만지고 반죽하고 기물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자아의식과, 또 공동작품의 제작으로 공동체 의식이 싹트기 때문이다.

특히 방학이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학특강을 마련해 가족원들이 공동의 취미 생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들의 E.Q 발달과 사춘기의 정서안정을 돕는다. 흙과 함께 가족이 하나 되어 진지한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 여름방학에는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5주 동안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반~4시에 특별프로그램이 열린다. 첫 주에는 반죽과 빚기법, 판작업을, 둘째 주에는 흙가래 성형을, 셋째 주에는 조각, 상감, 표면장식을, 넷째 주에 석고틀 작업과 전기물레 실습을, 다섯째 주에는 적재 시유 등 거의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재료비 별도에 두 사람이 참가할 경우 8만원, 3명은 10만원, 4인 가족 12만원이다.

문의 _ 무애원(<http://www.muawon.org> / 932-5087, 019-832-9125)

찾아가는 길 _ 강화대교를 건너서 강화읍 쪽으로 직진한다. 강화읍내 변화가를 통과하면 옛 강화성의 서문이 있는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회전한다. 3km 쯤 달리면 하점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해서 1km 가면 비구니 사찰인 백련사의 안내 간판을 볼 수 있다. 다시 1km 쯤 진행하면 300여 년 된 느티나무를 지나게 되고 500m 전방에 화강암 외벽을 도자기로 장식한 무애원 건물이 나온다.

생명, 몸으로 느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고 마시는 물...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의 중요성을

생태공원과 열전에서 새롭게 인식해 보는 체험이라면 아이들에게 더할나위 없는 산 공부가 될 것이다.

생태체험 최적지 인천대공원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인천대공원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자라고 있다. 덕분에 자연과 함께하는 쉼터로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다. 특히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인천대공원은 생명력 넘치는 소리로 가득하다. 인천대공원에서 토요일생태기행을 마련한 때문이다. 매월 1일부터 전화로 접수한 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은 15명씩 6개 팀으로 나뉘어 자생식물원과 자연생태원, 관모산의 생태관찰로 등에서 생태체험을 한다.

자생식물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고 우리나라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 140여종 1만5천여 본의 식물이 계절마다 새로이 피어나는 공간이다. 군데군데 해설판이 세워져 있어 우리 식물에 대해 이해하기 쉽다.



자연생태원은 생태연못, 관찰 데크, 관찰 동산, 생태하천 등이 조성돼 있어 다양한 생물들이 휴식을 취하고 생명을 이어가며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생태원을 조성하면서 46종의 나무와 56종의 식물들을 새로 심어 지금은 77과 204속 286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 나비와 잠자리, 탐라산왕거미 등 거미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자연생태관찰로는 신비한 자연의 친구들을 만날수 있도록 관모산 안의 1km 구간에 14개의 해설판을 설치한 탐방로다. 자연생태관찰로를 걸으며 숲속에서 다양한 동물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생태기행이라고 해서 참가자 혼자 휘~ 둘러보는 그런 기행이 아니다. 인천대공원의 토요생태기행에는 ‘고마리’라는 예쁜 이름의 자연안내 자원봉사자 함께 한다. 고마리들은 6개 팀을 각각 이끌며 아이들에게 직접 풀도 만져보고, 돋보기로 관찰도 하고, 버들강아지로 콧수염도 만들어보게 하면서 재미있게 탐방을 이끈다.

한편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원 방문자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별한 예약 없이도 시간 내에 인천대공원 자연생태전시관 앞에 도착하면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길 _ 경인전철 송내역의 남광장에서 시내버스 15, 16, 30번과 좌석버스 103번을 타면 인천대공원 정문에서 내릴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로 나오면 5분 거리다. 생태전시관은 인천대공원 정문에서 호수공원을 끼고 왼쪽 길로 가면 만날 수 있다. **문의** _ 인천대공원 (440-6537)

전통방식 천일염 제조, 삼량염전



강화군 외포리에서 배를 타면 15분 만에 닿을 수 있는 석모도는 예로부터 소금 생산지로 유명했다. 삼량염전, 한일염전, 홍국염전 등 3개의 염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삼량염전이 유일하게 햇볕에 바닷물을 건조시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석포항에서 나와 좌회전 후, 전득이고개를 넘어 내려가 민머루해수욕장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면 길 옆으로 허름한 소금창고와 그에 어울리

는 소금밭이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에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천일염전인 삼량염전이다. 이곳에서는 바다에서 퍼 올린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천일염을 얻는다. 봄부터 가을에는 피약볕에 맞서 소금보다 더 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모습과 오후 4시쯤 되면 수북이 쌓인 소금탑을 볼 수 있다.

흔히들 천일염이 햇살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하지만, 삼량염전의 권국성 씨는 거기에 ‘비’를 한가지 더 보탠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비가 조금 와주지 않으면 결정지 타일이 너무 짜져서 소금알이 잘 아진단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없이는 소금을 만들 수 없단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고 찾는다면 소금밭을 걸어볼 수도, 수차를 돌려보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만평이나 되는 염전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염부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환경체험이다.

찾아가는 길 _ 강화대교를 지나 알미골삼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84번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천우물삼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인산삼거리에서 다시 우회전하면 외포리선착장에 닿는다. 배를 타고 석모도의 석포항에 내리면 매음리 방향으로 진행한다. 전득이 고개를 넘어 해명초등학교가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다 평지가 나오면 좌측으로 삼량염전의 진입로가 있다. 주위에는 민머루해수욕장이 있어 염전 체험을 한 후 몸에 잔뜩 배어있는 소금기를 빼낼 수 있다. **문의** _ 삼량염전 (932-3531)

인천짚물의 ‘참 맛’을 보여주마... 해양탐구자연학습장



남동구청에서 소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고가 밑에서 좌회전해 농로를 따라 1.3km 가면 만날 수 있는 해양탐구자연학습장은 도심 속의 ‘보석’ 같은 곳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 입구부터가 바로 체험현장이다. 양쪽으로 갯벌체험장이 펼쳐져 있어 염생 식물들이 눈에 띄고 갯벌에선 뽕글뽕글 하며 바쁘게 들락거리는 생물체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장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이 바로 예전의 염전이었다는 것을 대변해 알 수 있다. 군데군데 옛 소금창고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일염을 생산하던 곳이었다는 증표다.

조금 걸어 들어가면 바로 염전학습장이다. 21만3천 평 중 1만3천여 평만을 복원한 이곳에선 하루 4백kg~1.2t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염전학습장에 서면 아득히 먼 끝 쪽으로 저수지가 보인다. 바닷물을 그대로 막아놓은 곳으로 바닷물이 소금으로 변신하는 원료저장 창고인 켄이다. 그 앞이

차레대로 난치지역, 늪태지역, 결정지역으로 구분돼 있어 바닷물이 소금으로 변하는 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학습장의 한 켠에는 수차도 비치돼 있다. 수차는 발로 밟아서 저장된 소금물을 결정지로 퍼 올릴 때 쓰던 도구다. 방문한 학생들은 수차 위를 직접 돌려보면서 소금생산에 ‘한 몫’ 거들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결정지역에는 소금이 맺히고, 보통 오후 4시 무렵의 소금을 채취하는 시간과 맞아 떨어지면 직접 ‘곰배’로 가래질을 하며 소금을 긁어모으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염전학습장 안에는 옛날에 쓰던 소금창고도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염전학습장에서 생산된 소금이 이곳에 보관돼 있고 단체로 예약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인천표’ 소금을 선물로 준다.

염전학습장 곁에는 1천여 평에 달하는 갯벌체험장이 마련돼 있다. 서해 바닷가에서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갯벌을 그대로 옮겨놓은 ‘미니갯벌’이다. 여벌의 옷을 준비해 왔다면 직접 체험장 안으로 들어가 농게랑 칠게 등을 잡으며 ‘갯짓’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찾아가는 길 _ 남동구청 정문 앞을 지나 소래 방향으로 직진한 후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 밑에서 좌회전해 농로를 따라 1.4km 정도 들어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1번 버스를 이용해 남동구청을 지나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 밑에서 내려 농로를 따라 걸어 들어간다. **문의** _ 남동구 도시정비과 (453-2670)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성환

몸쑥쑥 마음튼튼

우리시와 청소년 단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즐겁고 유익한 방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캠프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존. 문화존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서양의 악기와 다양한 춤 체험, 과학의 원리를 재미나게 배울 수 있는 과학교실, 마술학교, 만화와 캐릭터 등 14개 프로그램이 열린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드림, 뮤지컬,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카메라 잘 찍기 등의 강좌도 청소년을 기다린다. 또 영종존에서는 과학의 이해 탐구를 위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한국청소년인천연맹(884-0054)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혼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여는 청소년서당이 눈길을 끈다. 인천향교 명륜당과 인천도호부청사에서 열리는 청소년 서당은 택견, 경당, 단학, 국궁 등의 전통무예와 대금, 단소 등의 전통음악을 배워 문·무를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서예교실과 생활예절 한자교실 등이 열려 전통문화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8월 9일부터 20일까지 교실별로 나누어 열리는 청소년 서당은 우리시 초·중·고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선착순으로 개별 접수해야 하며, 참가비는 따로 없다.

사 업 명	일 정	내 용	문 의 처
Open mind! Open world!	5.22.~8.22. 격주로 총 8회	대상 : 관내 청소년(15명) 장소 : 동구 청소년수련관 내용 :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문화 이해하기, 외국인노동자전통문화축제, 체육대회참여 문화체험 등	동구 청소년수련관 777-7944
청소년단체협의회 문화아카데미 무료방학강좌	7.19.~8.21.	대상 : 초등학생 장소 : 문학 유스센터 내용 : 드림, 오키나와, 사물놀이, 단소, 과학교실, 사이언스쿨, 한국무용, 방송댄스, 스토리텔링, 리듬줄넘기, 댄스스포츠, 표현미술, 마술학교, 만화와 캐릭터	437-1318
		대상 : 중·고등학생 장소 : 문학 유스센터 내용 : 드림1·2, 브로드웨이뮤지컬, 만화와 애니메이션, 디카 잘찍기 등(5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취미교양교육 특강	7.19.~8.20.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장소 :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내용 : 자기이해교실, 발표력 향상교실, 자원봉사체험학교, 짜저싸이즈교실, 주산교실, 댄스스포츠포메이션, 한자교실, 청소년요가, 창작미술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546-7646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여름방학 특강	7.20.~8.22.	대상 : 청소년 장소 :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내용 : 청소년 영상제작연습 외 11개 프로그램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880-4897~9
시 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특강	7.26.~8.21.	대상 : 초1~24세 이하 청소년(893명) 장소 : 청소년수련관 강의실 내용 : 드림, 요가, 종이공예, 하모니카, 칼라믹스 등 41개 강좌	시 청소년수련관 465-6828 440-6262
시 청소년회관 여름방학특강	7.26.~8.20.	대상 : 초등1~24세 이하 청소년(240명) 장소 : 청소년회관내 교육실 내용 : W/P, 연극, 종이접기, 레고닥터, 글쓰기 등 9과목 12개반	시 청소년회관 440-6662
		대상 : 초등1~24세 이하 청소년(80명) 장소 : 청소년회관내 전통문화교실 내용 : 탈춤, 가야금, 사물놀이	
동구화수 청소년문화의집 문화교실	7.27.~8. 7.	대상 : 청소년(각반 15명) 장소 : 동구화수청소년문화의집 내용 : 힙합아 놀자, 만화교실, 매직미술, 풍선아트, 아이 프로젝트	동구화수 청소년문화의집 777-7942
서구가정 청소년문화의집 여름문화학교	7.27.~8.21.	대상 : 초등학생 장소 : 서구가정 청소년문화의집 내용 : 댄스스포츠, 힙합, 미술교실	서구가정 청소년문화의집 560-4562
인천가톨릭 청소년회 테크노스포츠타당	8. 1.~8.15.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문학경기장 (안공암벽장, X-게임장) 내용 : 스포츠킴라이밍, 인라인스케이트 BMX 교실	833-2010
무료영화	8.1 ~ 8.31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내 내용 : 건전영화 상영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934-0177
시골체험캠프	8.3 ~ 8.5	대상 : 초등학생(40명)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내용 : 농작물 수확, 자연체험, 민속놀이	YMCA 431-8161
가족캠프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8.3 ~ 8.5	대상 : 20가정 장소 : 남이섬 내용 : 어린이 친환경 생태체험으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 등	YWCA 424-0524

사 업 명	일 정	내 용	문 의 처
방학특강	8. 3.~8.27.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취미교양교육실 내용 : 매직풍선, 생활일어, 탁구, 미술, 바둑, 생활예절, 우리가락 배우기, 청소년 댄스 등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934-0177
애니메이션 축제	8. 6.	대상 : 관내 청소년(30명) 장소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용 : 창작 활동을 통한 장애우와의 연합축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833-2010
엄마와 함께하는 나의미래 발견하기	8.9.	대상 : 초·중학생 장소 : 인천 YWCA 내용 : 자녀의 진로탐색 등 미래설계	YWCA 424-0524
영어캠프	8.9 ~8.12	대상 : 초등2~6년생(40명) 장소 : 경기도 안성 예지촌 내용 : 테마영어, 생활영어, 영어글쓰기	YMCA 431-8161
청소년여름수련캠프	8. 9.~8.12.	대상 : 관내 청소년(60명) 장소 : 경북 안동일대 내용 : 문화유적지 탐방 및 체험 등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833-2010
청소년서당	8.9.~8.13. 8.16.~8.20.	대상 : 초·중·고등학생 300명 장소 : 인천향교 내용 : 단학, 한자학습, 서예교실 대금·단소교실 등	한국청소년 인천연맹 884-0054
테마가 있는 영화	8.10 ~ 14	테마가 있는 영화상영	동구화수청소년문화의집 777-7942
국토체험캠프	8.10 ~ 8.14	대상 : 초등학생(40명) 장소 : 설악산 장수대 수련원 내용 : 국토체험, 자연체험, 계곡탐험, 인간관계훈련, 담력훈련 등	YMCA 431-8161
청소년단체협의회 문화아카데미 어린이 숲체험단	8.10. 8.11.	대상 : 초등학생 내용 : 관계형성, 숲슬라이드보기, 나무의 소리듣기, 나이트 알기, 광합성실험, 나만의 나뭇잎 놀이, 몸으로 표현하는 나무의 구조	429-1318
재미있는 민주주의	8.11.	대상 : 초등학생 장소 : 청와대, 국회의사당 내용 :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듣고 체험	YWCA 424-0524
인천기독교 청년회 인천사랑캠프	8.11.~8.13.	대상 : 초·중·고등학생 장소 : 가천인력개발원, 김포청소년수련원 내용 : 관내 주요유적지 및 역사현장 탐방, 봉사대불놀이, 인천의 미래상 만들기 등	YMCA 431-8161
탐라문화 캠프	8.11.~8.14.	대상 : 중학생(생활이 어려운 모범청소년) 40명 장소 : 제주일원 내용 : 문화유적지 견학 및 한라산 등반 등	시 청소년회관 440-6662
아름다운캠프	8.11.~8.14.	대상 :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220명 장소 : 경기도 덕평청소년수련원 내용 : 문화유적지 및 캠프활동 참여	인천청소년 문화사업단 434-5711
청소년단체협의회 문화아카데미 청소년 역사탐험대	8.12.~8.13.	대상 : 초등학생 장소 : 문학 유스센터, 충북단양 내용 : 세계문화유산 슬라이드, 역사신문만들기, 단양팔경이 생겨난 이유, 온달과 평강공주	429-1318
문화숨씨전시회	8.13.~8.14.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여성문화회관 내용 : 청소년들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장르의 작품전시	YWCA 424-0524
청소년음악회	8.14.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여성문화회관 내용 : 전문가의 설명을 통한 클래식 음악의 접목경험	YWCA 424-0524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8.16.~8.19.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관내 전지역 내용 : 자원봉사 교육 및 봉사활동 실시	(재)인천청소년재단 438-3907
가족과 함께 가는 역사기행	8.20	대상 : 초등생과 학부모(40명) 장소 : 강원도 영월 내용 : 고씨동굴 및 동굴탐험, 청령포견학, 장릉견학, 민화박물관견학	YMCA 431-8161
여름방학캠프	8.20.~8.21.	대상 : 관내 청소년 및 지도위원 장소 : 강화유스호스텔 내용 : 세대간 벽허물기, 레크레이션, 갯벌체육 대회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934-0177
꿈을 키우는 인형극장	8. 21	인형극 상영	동구화수청소년문화의집 777-7942
나는야! 챔피언	8.28.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동구 청소년수련관 내용 : 칠교대회, 도미노대회 등	동구 청소년수련관 777-7944
또래성교육	8.28	대상 : 중·고등학생 장소 : 동구 청소년수련관 내용 : 또래성교육	
인천청소년 문화사업단 과학체험	8월 매주(토)	대상 : 초·중·고등학생 장소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내용 : 다양한 과학체험을 통한 과학의 이해탐구 등	인천청소년 문화사업단 434-5711
청소년푸른쉼터 야외공연	8월중 1,3째 토요일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자유공원 야외공연장 내용 : 댄스, 수화, 풍창, 치어 등 공연	
찾아가는 푸른쉼터	8월중 매주화요일, 목요일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강화 국화리 야영장 내용 : 캠프 FIRE	
청소년 지도력개발훈련	8월중 1,2째주 토요일	대상 : 관내 청소년 장소 : 인천청소년문화사업단 교육실 내용 : 지도력 개발 훈련	

※위 행사는 주관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굿인cheon 굿뉴스

을왕·왕산·십리포해수욕장 통수



을왕·왕산해수욕장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상수도공급시설공사가 끝남에 따라 이 지역 수도물 공급을 기념하기 위한 통수기념 행사가 지난 7월 8일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을왕·왕산해수욕장은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 해양휴양지로 해마다 많은 피서객이 이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특성상 현재까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피서객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영흥도 십리포해수욕장 통수식도 7월21일 열려 이 지역에도 수도물이 공급됐다. 이번 상수도공급시설공사로 용유지역 을왕·왕산해수욕장과 영흥도 십리포해수욕장 지역에 수도물이 공급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생활용수로 인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상수도사업본부(870-9283)

동막역~송도신도시 시내버스 운행

그동안 송도신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시내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전혀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인천지하철 1호선 및

수도권 국철과 연계되는 6번(20대), 6-1번(19대) 등 시내 순환형 2개 버스노선을 송도신도시까지 연장해 운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연장 운행되는 송도신도시~동막역 간 운행노선으로 인해 곧 청사를 이전하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신도시 종사자들의 대중교통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 현황 : 6번, 6-1번 요금 : 성인 700원(카드 650원), 중고생 500원(카드 450원), 초등생 250원(카드할인 무)

문의 _ 시 대중교통과(440-3891)

인천메세나협의회 구성위한 토론회

전국문화원연합회인천시지회가 지난해 기업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방향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7월 6일 오후 인

천메세나협의회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세나'는 프랑스어로서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메세나운동은 그동안 일부 대기업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기업 마케팅 또는 광고 협찬팀의 스폰서십을 위주로 운영돼 왔다.

인천메세나협의회는 올해부터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메세나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바꿔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순수한 메세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음을 전제로, 메세나 홍보 및 교육사업, 메세나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문화콘텐츠 개발보급, 메세나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종합해 가칭 '인천광역시 기업메세나 촉진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했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440-3243)

인천앞 바다에 우럭 40만 마리 방류



우리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지난 7월 6일 연구소에서 대량 생산한 우럭치어(7cm 이상) 40만 마리를 강화군 서도면 분지골·지낭골 해역에 대대적으로 방류했다. 또 7월 21일에는 우럭 30만 마리를 옹진군 영흥·자월해역에 방류했고 7~8월경 꽃게 200만 마리, 9~10월 경에는 넙치 30만 마리와 전복 10만 마리 및 시항양식품종인 대하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다. 아울러 말쥐치·황복 양식기술개발, 전복·해삼 복합양식, 범게시험연구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고

포토시정

아테네올림픽 출전 향토 선수 격려

지난 7월 22일 김동기 행정부시장을 비롯, 한상철 시체육회 사무처장 등은 태릉선수촌을 방문, 서거원 양궁 국가대표 남자감독, 임영철 핸드볼 국가대표 여자감독, 이복희(유도), 안용원(유도) 등 인천 소속 임원·선수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아테네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 품종을 중심으로 적극 연구 개발해 우량 종묘를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방류할 계획이다.

문의 _ 시수산종묘배양연구소(883-0399)

문학경기장내 문학유스센터 개소



문학경기장 내 청소년 전용공간인 문학유스센터가 7월 10일 주경기장 A게이트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우리시가 설치,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문학유스센터에서는 학교 특별활동, 숲체험단, 역사탐험대, 국제교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과학교실·미술교실·드럼·사물놀이·만화교실·고전무용 등의 20여개 강좌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문의 _ 시 문학유스센터(437-1318)

행정서비스통합현장 제정공포식 개최

우리시는 관내 통장, 공무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행정서비스 통합현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고객만족의 선진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시는 지난 1999년 8월부터 각 기관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현장을 제정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시 본청 15개 서비스현장을 1개의 현장으로 통합하고 15개 분야별 이행기준은 18개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주요내용을 개정한 통합현장을 제정·공표했다. 작성한 이행기준은 내부검토 등을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 및 고객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행정서비스 통합현장을 최종 확정하고 통합현장 공표식을 개최했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440-2424)

주말은 쓰레기 없는날

우리시는 7월부터 매주 주말(토요일 오전8시~일요일 오후8시)과 공휴일(전날 오전8시~당일 오후8시)을 '쓰레기 없는날'로 정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5일제 근무를 시행(내년 1월 1일 예정)하게 되

인천FC 홈경기, 이주 노동자 입장료 할인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은 삼성 하우젠컵 2004 인천 첫 홈경기일인 7월 18일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해 2,000원에 홈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만명에 육박하는 인천의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입장권 가격인 10,000원을 내고 경기장에 축구를 보러 오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미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홍보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이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축구에 열광적인 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인 이주노동자들을 경기장에 끌어들이어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게하여 인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는 이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축구

에 열광적인 이주노동자들이 홈 경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세계적인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인천 뿐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적극적인 팬 층으로 끌어들이어 글로벌 축구 클럽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는 향후 아시아 시장 진출시 큰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 홈 경기 관람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표소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2,000원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혹은 교회 등의 단체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_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423-1500)

<p>면 ‘쓰레기 없는 날’을 금요일 오전 8시~일요일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p> <p>우리시는 이와 별도로 지정된 시간(평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외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일선 군·구와 청소 대행업체에 각각 쓰레기 순찰기동반과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p> <p>문의 _ 시 청소과 (440-3560)</p>	<p>정모니터를 686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키로 하고 지난 6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시민 378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치행정모니터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시민으로 교사, 학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외국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계층별 여론이나 시민의견 반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모니터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시정의 문제점이나 주민불편사항 등을 가정이나 직장 등 편한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on-line으로 시에 실시간 제보·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시에서는 자치행정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정정보 등을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p> <p>문의 _ 시 자치행정과(440-2423)</p>	<p>개발을 위한 공동협의회 (공동 T/F팀)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20여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는 인천역 복합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기본 구상,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상호 사안별 검토사항 등 제반사항을 검토, 협의하여 용역 및 개발계획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p> <p>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3323)</p>
<p>릴레이 환경정화봉사</p>  <p>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과 하계휴가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을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일에 힘을 모은다. 릴레이 환경정화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홍보 캠페인을 통해 바쁜 생활속에서 모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시를 방문하는 여행자 및 시민들이 상쾌한 휴가를 보내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일조한다. 7월26일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은 8월 5일(토, 일요일제외) 까지 월미도, 소래, 연안부두 일대, 청량산, 계양산, 공천천, 굴포천, 동막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웅암해수욕장 등 14개 인천의 관광지, 하천, 산 등지에서 600여명의 일반, 청소년봉사자가 참여한다.</p> <p>문의 _ 시 자원봉사센터 (863-1365)</p>	<p>인천역사 새롭게 태어난다</p>  <p>우리시는 구도심 재생사업 및 차이나타운 개발 사업과 연계해 날로 증가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등 동북아 관광객 유치 를 위해 인천역 부지 위에 복합 센터 및 부대상업시설을 철도청과 합작 개발키로 하고 7월 15일 공동협약을 체결했다.</p> <p>우선 인천역사 부지 약 4천3백여 평에 역사 기능과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 다양한 복합 센터 기능을 가진 복합역사를 건립하고 2단계로 인천역사에 인접한 2만6천여평 인천역 전체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다.</p> <p>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시와 철도청은 인천복합역사 건립 및 인천역</p>	<p>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출입이 8월 1일부터 통제된다. 사적 136호인 참성단이 일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출입을 완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p> <p>그동안에도 참성단 내의 제단 출입을 통제해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참성단 둘레에 울타리를 설치에 출입을 막기로 했다.</p> <p>강화군은 참성단 맞은편 헬기장 주변에 참성단 전경 등을 담은 사진을 설치해 출입통제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p> <p>문의 _ 강화군 (933-8012)</p>
<p>자치행정모니터 추가 위촉</p> <p>우리시는 생활주변의 주민 불편사항과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308명으로 운영중인 자치행</p>		<p>장애아동에 자세유지기구 보급</p> <p>우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직각의자나 블록식 자세 유지기구 등의 필요한 기구를 만든 뒤 장애 아동 가정에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우선 만 3살~12살의 저소득층 장애 아동이며, 무료로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 형편이 조금 나은 경우에</p>

<p>는 실비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자세유지기구 6대를 만들어 장애인 가정에 시험적으로 지원했고 그 효과를 평가, 검증한 뒤 올해 말까지 1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400명, 2006년에는 600명 이상으로 지원 대상자를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우리시의 이 같은 결정은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혼자 하려면 자세유지기구가 필수적이지만 값이 수백만원대로 비싸 대개의 가정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다. 현재 우리시에는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이 5만 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p> <p>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13)</p>	<p>정됐고 부평구 산곡동 251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한쪽에서 양쪽으로 확대됐다. 또 서구 마전동 마전택지지구 사거리의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됐다. 이와 함께 남구 도화2동 93-1~도화2동 이영아파트 앞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새로 지정됐으며,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남쪽~김스클럽 동쪽 도로의 일방통행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변경했다. 반면 구월동 상호신용금고~SK텔레콤 도로와 구월동 금강빌라~롯데백화점 도로 등 2곳은 일방통행에서 해제했다.</p> <p>문의 _ 시 경찰청 (433-0112)</p>	<p>번째로 ‘맑은터전 남동의제 21’, 동부교육청 등 30여개 단체들이 참여한 ‘장수천네트워크(준비위원장 김성근)’를 구성해 본격 출범한 것이다.</p> <p>장수천네트워크는 앞으로 장수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정비활동 및 의견 제안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p> <p>문의 _ 인천의제21 (440-1544)</p>
<p>정체도로 13곳 주·정차금지구역 지정</p> <p>우리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차량통행이 많은 인천 시내 도로 13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속도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천마산 터널 입구 등 13곳은 차량정차 및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새로 지</p>	<p>‘장수천네트워크’ 발대식</p> <p>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공동단장 최계운 김창섭)하천네트워크 위원회는 7월 14일 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수천네트워크’ 발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역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 민간 공동참여로 구성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지난 2월 공촌천네트워크를 구성한데 이어 두</p>	<p>에너지대량소비업체와 자발적협약체결</p>  <p>우리시는 7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에너지대량소비업체인 인천공항에너지(주) 등 21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 대량소비업체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이를 이행하고, 정부는 참여업체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업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 규제적인 제도이다.</p> <p>이날 협약식에는 김창섭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업체대표자 22명이 참석해 협약을 교환했다. 인천지역에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91개사로 이번에 22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66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91개 업체의 총에너지사용량은 1천12만 4천TOE이며, 이번 계약 체결로 향후 5년 동안 52만6천TOE(1,578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문의 _ 시 경제정책과(440-2844)</p>
<p>휴무 토요일에도 시청 민원업무 처리</p>  <p>우리시는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 2회(둘째·넷째 토요일) 휴무한다. 그러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접수창구(종합민원실)는 정상근무를 한다. 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일민원상황실(당직실)을 운영 하고</p> <p>(토요일민원상황실 : 440-2222) 주요 민원처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당번근무를 실시한다. 그러나 경미한 민원이나 상담민원은 편리한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길 당부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청사안내 창구도 운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실 : 440-2581(일반민원), 440-2471(여권)- 정문, 후문, 현관 및 종합민원실에서 청사안내 <p>■ 2004. 7 ~ 2005. 6 (1년간) : 매월 2, 4째주 토요일 휴무</p> <p>■ 2005. 7월부터 : 주 5일근무제 전면실시</p> <p>문의 _ 440-2411~2418(총무과)</p>		

2007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우리시는 불필요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고 도로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혼잡 통행료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월 말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2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10월 통행료 징수 도로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 뒤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통행료 징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남동구 무네미길과 계양구 경명로 등 도로 2곳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30km, 교차로 등의 지체시간이 50~100초일 경우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우리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한 후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56)

차량 등록업무 10개 군·구로 이관

자동차 등록업무가 9월 1일부터 기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0개 군·구로 이관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옹진군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중구와 업무위탁규약을 맺어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등록업무가 부평과 계양, 서구, 남동구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실시되면서 빚었던 형평성 논란과 주민 불편

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차량등록사업소 (440-6469)

주택가 ‘쌘지주차장’ 조성

우리시는 단독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곳에 ‘쌘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지는 차량 1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100평 안팎 규모로 건축물이 있어도 상관없으며, 아파트단지나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단독주택 주민들로부터 각 구청별로 주차장 조성 신청을 받았다. 우리시는 8개구 117개 동에 이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쌘지 주차장을 위한 사업비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와 조성비 등 1,988억원이 들어간다. 우리시는 주민에게 제안 받은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10월까지 마친 뒤 적정부지로 판정되면 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의 _ 시 주차관리과 (440-3926)

부평 미군부대앞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부평구 산곡동 부평 미군부대 부지 13만 3천여평 가운데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4만6천 평을 제외한 8만 7천여 평을 교육·연구·문화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이 지역을 아파트지구에서 해제시킨 뒤 개발 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곳은 아파트 개발이 제한되는 대신 2008년부터 부평문화회관과 초·중·고교 등이 건립되고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부평 미군부대와

경계하고 있는 산곡동 293-9일대 4500여 평에 대해서는 부지 소유자인 주안장로교회측이 신학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산곡동 부평 미군부대 부지는 군부대가 2008년 경기도 평택시로 이전되는 즉시 개발될 계획으로 이곳이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교통체증 등이 우려돼 교육·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문의 _ 시 도시계획과 (440-3355)

인천인구는 260만5977명

지난 6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260만5977명이며 이중 외국인인 3만170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시의 ‘2004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인구는 2003년말 당시 인구 260만278명보다 4699명(0.18%)이 늘어난 260만5977명(남자 132만823명, 여자 128만5154명)이다. 전체 가구 수는 90만223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식구 수는 2.89명이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55만6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43만7652명, 남동구 39만9581명, 서구 35만8861명, 계양구 34만2097명, 연수구 25만8044명, 중구 9만319명, 동구 8만2811명, 강화군 6만5572명, 옹진군 1만46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인구 증가율로 따져보면 공항 주변 배후지원단지에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중구가 3.16%로 가장 높았고, 검단지역에 7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서구 (1.1%)도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연수, 남동, 부평구 등 3개구는 모두 인구가 0.22~0.78%씩 줄었다. 한편 우리시의 외국인인 모두 3만1703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19명이 늘었는데 국적별로는 중국이 74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66)

Now 인천 |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보고

완전한 자기 비전을 가진 ‘인천공화국’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가 지난 7월8일 오전 송도테크노파크 벤처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송도테크노파크(TP) 벤처빌딩의 준공식을 겸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안상수 시장과 이현재 경제부총리,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동석 건교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홍승룡 인하대 총장 등 지역혁신위원 27명 등 경제계와 관·학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보고’를 통해 “인천은 지금 국제적인 최첨단 도시 건설을 위해 제2연륙교 건설사업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전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 사업 대부분이 국고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보고회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인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이창운 인천YMCA회장은 ‘시립인천대학교의 국립화 문제’ 그리고 전의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은 ‘송도신도시의 유비쿼터스 건설’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안 시장의 보고와 토론을 청취한 뒤 “인천시와 한국이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이 계획대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인천이 한국의 한 도시이기는 한데 ‘인천공화국’ 같은 거의 완전한 자기 비전을 가진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제13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7월 15일 의회 중앙홀에서 인천광역시 의회 개원 제13주년 및 제4대 2기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승숙 의장을 비롯한 현 시의원과 안상수 시장, 나근형 교육감, 이기상·심상길·김춘식·강부일·이영환 전 의장 및 권종광 의정회장, 이운성·이경재·홍미영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승숙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민 위주의 열린의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본위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260만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제4대 2기 박승숙 의장 선출 및 원구성



박승숙 의장



신영은 부의장



노경수 부의장

인천시의회는 7월 8일 전체의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126회 임시회를 열고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한나라당 박승숙(67) 의원을 선출했다. 인천 토박이로 인천여고를 졸업한 박 의장은 3선 의원으로 새얼문화재단 후원회 부회장, YWCA 인천지회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한나라당 중앙당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3대 시의회 부의장 등을 지냈고 현재 한나라당 인천시 당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장은 전국적으로 지난 3대 후반기 이영환 전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의회 여성 의장이 되었다. 한편 부의장 선거에선 신영은 의원(54·한나라당)과 노경수 의원(55·무소속)이 각각 선출됐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성숙
간 사 : 임희정
이성옥
위 원 : 김덕희
이강효
전승기
추연어
홍인식
황창배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이근학
간 사 : 전승기
추연어
위 원 : 김성호
박창규
신영은
이주삼

▶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 고진섭
간 사 : 이강효
홍인식
위 원 : 김성숙
안병배
최병덕
최석환

▶ 산업위원회
위원장 : 김필우
간 사 : 황창배
이성옥
위 원 : 노경수
박용렬
신경철
이범성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이진우
간 사 : 김덕희
임희정
위 원 : 강석봉
강창규
김을태
황인성

자료제공 _ 시의회 공보팀

우리아이 안전 식탁, 우리시가 지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시범학교로 지정된 부광초등학교

얼마 전 서울 어느 학교의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믿을 수 없다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렇듯 방지되기 쉬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10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우리시의 여느 조례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우리시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가 제정된 데에는 ‘학교급

식환경개선과 조례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위원장 박인숙, 이하 시민모임)’의 역할이 컸다. 시민모임은 3만8천65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했다. 우리시는 절차에 따라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시민모임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3월 16일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끝에 마침내 조례가 공포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우리시는 우선 올해는 각 군구별로 1개 학교씩 총 10개 학교를 친환경농산물 급식 시범학교로 지정해 3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쌀의 경우 20kg 한 포대당 4만5천여 원을 지원한다.

부광초등학교(교장 한재선)는 올해 시범학교로 지정돼 3월부터 친환경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다.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학교의 영양사 이영미 씨는 “우리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한다고 학부형들께 알렸더니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예전보다 훨씬 밥을 잘 먹는 것 같아요. 쌀은 예전보다 하루에 5kg정도 더 먹더라구요. 친환경 쌀이 일반 쌀보다 3.5배 정도 비싸지만 아이들이 잘 먹으니 보람 있어요”라고 말한다.

우리시는 학교 급식지원을 내년에는 50여개 학교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검토해 지난 5월에는 농림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는 한편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 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우리시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다른 시도의 귀감이 되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례의 제정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개방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주는 한편 농가소득도 향상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무한한 성장잠재력 부러워요”

인천시청 복도에서 가끔씩 낯선 외국인과 마주칠 때가 있다. 베트남 하이퐁시 공무원 밍하이(Loung Thi Minh Hanh · 33)씨다.

밍하이 씨가 한국에, 그것도 인천에 오게 된 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KLAFIR)의 K2H 프로그램을 통해서이다. K2H 프로그램은 중국, 베트남, 몽골,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가의 자치단체 공무원을 초청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연수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교류협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공무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밍하이 씨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국어, 한국인의 일반생활, 역사와 문화, 지방자치제도 등을 배우는 사전 연수를 거쳐 하이퐁시와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우리시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서 밍하이 씨의 주요 업무는 한국, 나아가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는 것. 이를 통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천과 하이퐁 두 도시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는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인민위원회 시장실의 정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의 업무는 하이퐁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 홈페이지에 경제, 문화, 사회, 공공서비스절차 및 하이퐁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사 뿐 만 아니라 행사 및 시정현황, 시장의 활동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제교역 및 투자홍보를 같이 겸하고 있다. 일인다역이란 바로 그이를 두고 하는 얘기인 셈이다. 그의 활약에는 미국의 M.B.A를 취득한 막강 실력이 밑받침이 되고 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무엇보다 집이 그리운 것이라고 대답한다. 베트남에 사랑스런 9살짜리 딸과 남편을 두고 온데다 한국에 베트남 친척이나 친구가 없기 때문에 향수병이 가장 큰 어려움이란다. 남편은 한국 기업체인 LG케이블과 합작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출장차 한국을 방문한 덕분에 오랜만에 남편과 조우할 수 있었다.

인천에서 지내면서 또 다른 불편은 역시 언어문제. 아직까지 한국어를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 불편하단다.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인천을 더 많이 알기 위해 일주일에 세 번씩 우리시 시민명예외교관 사무실에 가서 자원봉사자에게 일대일 수업을 받고 있다.

한국에 와서 배운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 같으며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배울 만 하다는 말을 덧붙인다.

“베트남에 돌아가면 인천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한국의 주요 관문도시라고 설명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이를 통해 정말 인천이 한국에서 가장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정식



3년이라는 시간... 그댄 나를 잊을까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 두긴 싫어
3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김민우 노래 <입영열차 안에서>

그들은 이 순간부터 자신의 미성년(未成年)과 영원한 결별을 고한다.
통곡하는 어머니, 속이 타면서도 애써 미소짓는 아버지, 뒤돌아 서서 흘쩍이는 애인,
무표정하게 손을 흔드는 친구들...언제나 입영열차 앞의 풍경은 한결 같았다.

입영열차는 지난 85년까지 운행되다 입영장정들이 자가용 등을 이용해
곧바로 훈련소로 입영하는 바람에 폐지됐다.

인천의 입영열차 출발지는 지금은 자취를 거의 감춘 수인역이었다.
열차가 시계(市界)를 채 벗어나기 전에 호송병들의 불호령이 카랑카랑하게 떨어진다.
“동작 그만! 모두 눈감고 고개 숙여!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장정에서 훈병, 이병을 거쳐 제대할 때까지
‘남자들의 영원한 수다’로 불리는 3년 군대생활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鉉>

남은 음식물 담아가기 운동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자원순환분과, 인천녹색연합,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남구지부는 7월 12일부터 남구지역 40개 일식, 한식, 중식 업소에서 고객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포장용기에 담아가는 ‘남은 음식물 담아가기 운동’을 전개한다.

남은 음식물 담아가기 운동은 우리나라 음식문화 특성과 이용자들의 의식부재로 효과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고급위생 포장용기에 담아가갈 수 있게 한 것이다. 포장용기는 반환 시 전액 환불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참여하는 업소도 처리비를 줄일 수 있어 업소 또한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운동이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자원순환분과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남구 전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인천시는 도심지의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1단계로 2006년 까지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최우선 사업으로 책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희망자에게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지원대상은 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보육시설, 공동주택, 공장, 단독주택, 상업시설, 음식점, 병원 등 민간시설로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은 모두 해당된다. 민간부문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담장철거와 폐기물처리비 전액과 조경 사업비의 70%까지(단독주택 500만원까지, 다중성건물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각 동의 조사내용(신청사항)을 시와 관할구에서 8~9월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10~12월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골목청결 으뜸 모임



종량제 실시 이후 도시의 뒷골목, 상가밀집지역 등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점차 청소 상태가 불량해지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의제 자원순환분과는 내 집 앞 청소, 골목길 청소 등 사라진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청결 유지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골목청결 으뜸 모임’을 선정한다.

자원순환분과 위원과 시 청소과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통해 골목청결 상태, 마을 주민협동심, 골목

미관 조성상태, 청소추진 실적 자료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11월에 으뜸지역 1개소, 버금 으뜸지역 2개소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각 구청이 선정한 골목청결 모임은 도원동사무소 옆(중구), 송림로타리 한미은행 뒤편(동구), 주안3동사무소 옆(남구), 대동월드 옆(연수구), 만수1동 성당 앞(남동구), 부평구청 옆 시장 쪽 쌍용주유소(부평구), 용종역자골목(계양), 가좌사거리 보호수 나무 뒤편(서구) 등이다.

인천 최초는 대한민국 최초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문물들을 품은 도시이다.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 최초의 철도, 한성·인천 간 시외전화 첫 개통, 1902년 12월 인천항에서의 첫 하와이 해웨이민, 북성동 ‘공화춘’에서 첫선을 보인 자장면 등이 근대 개항지인 인천이 자랑하는 ‘최초 기록’들이다. 우리시는 ‘최초, 최고, 유일 시리즈’로 소개할 54개 항목을 발굴해 올해 말까지 책자와 만화로 발간하는 ‘인천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한다.



1897년 3월 22일 쇠뿔고개(현 도원역)에서 거행된 경인철도 기공식



서구식 공원(1888) - 각국 공원 (현 자유공원)



전선업무 개시 - 월미도 무선전신소 (1885)

명 칭	연도	내 용	명 칭	연도	내 용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	서구와 최초로 국교 체결	주안염전	1907	최초로 천일제염이 시도된 곳
영국군함 플라잉스호	1882	최초의 축구 보급지	인천항 갑문	1918	동양 최대의 갑문항구
이화양행	1883	최초의 외국무역회사	송도유원지	1930	인공백사장으로 만든 최초의 해수욕장
인천~한성	1884	최초의 우편업무 시작	남인천~수원	1937	최초의 협궤열차
내리교회	1885	최초의 교회	신진자동차	1937	최초의 자동차 공장
인천~한성	1885	최초의 전신업무의 개통지	중구 영종도	구한말	최초의 현대식 목장
인천객주회	1885	민간 상인단체의 시초	인천시립박물관	1946	최초의 시립박물관
조선인촌회사	1886	처음으로 성냥을 만든 곳	수준원점	1963	지형측량의 시발점
자유공원	1888	최초의 서구식 공원	경인고속도로	1968	최초로 개통된 고속도로 기공지
대불호텔	1889	최초의 서구식 호텔	광신제면(중구 경동)	1970	풀면 탄생지
세창양행	1890	최초의 서양식 주택	상륙작전기념관~송도유원지	1998	인권의 거리
담손이정미소	1892	스팀동력에 의한 최초의 정미업 시작	인천국제공항	2001	동북아 최고의 허브공항
영화학교	1892	최초의 서구식 초등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	2003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인천전환국	1892	근대적인 화폐의 제조지	인천대·인천전문대	1994	최초의 사학재단 시립화 및 2개의 시립대 보유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창설	1893	구 강화대교와 신 강화대교 사이		1883	각국지계 외국인 묘지
이운사	1893	최초의 근대적 해운회사	인천항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곳
해성보육원	1894	근대 아동복지사업의 시발지	마니산		우리나라에서 지기가 가장 센 곳
애관극장	1895	최초의 극장	인천항		밀물과 썰물의 기준시점
경인철도	1897	최초의 철도 기공지	인천교도소	1958	최초의 보이स्क웃 소년대 발대식
동양연초회사	1899	최초의 담배 생산지	홍콩사람이 개설	1883	최초의 화재보험 대리점
인천~한성	1900	최초의 시외전화 개통지		1990	최초의 시립극단
하와이	1902	최초의 해웨이민이 시작된 곳	중구 경동	1911	최초의 구두 제조지
팔미도등대	1903	최초의 등대		1950	인천상륙작전
양무호	1903	근대식 군함의 호시	고려시대		녹청자 도요지
인천앞바다	1904	러일전쟁 발상지	청동기 시대		강화 고인돌
인천기상대	1904	최초의 근대적 기상관측 시작	강화갯벌		세계5대 갯벌 보유지
공화춘	1905	최초로 자장면을 만든 곳	능허대		삼국시대 대중국 교류 항구

※연도나 이름이 없는 것은 정확한 시기나 장소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

세상을 바꾸는 ‘아줌마의 힘’

장마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옛 주안2동사무소를 개조해 사용하는 부곡경로당을 찾았다. 건물에 들어서니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솔솔 피어난다. 이곳이 바로 남구여성자원봉사대가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밑반찬을 만들고 준비하는 곳이다. 남구여성자원봉사대는 지난 1989년 10월 23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을 만들어 주고,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무료급식을 돕는 등 활발한 자원봉사를 한 덕분에 우리시에서 모범 자원봉사단체로 선정됐다.

39명의 봉사대 회원들은 8개조로 나뉘어 활동하는데 밑반찬 만드는 일에는 매주 4~5명이 참여한다. 오늘 만들 반찬은 봉사대의 주력 메뉴인 동그랑땡과 오이김치, 그리고 돼지불고기다. 여성자원봉사대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남구 사회복지과 김동미 씨는 “동그랑땡은 재료 준비가 번거로울 뿐더러 더운 여름날 일일이 부치려면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밑반찬으로 하시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며 굳이 손이 많이 가는 동그랑땡을 만드느라 고생들을 하신다”며 안타까운 표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밑반찬은 예쁜 반찬통에 담겨 남구에 사는 독거노인을 비롯해 소년소녀 가장, 재가 장애인 등의 20여 가정에 전달된다. 오늘은 특별히 자원봉사대의 선한 일을 알게 된 후원자가 참기름을 직접 들고 부곡경로당을 찾았다. 봉사대원들은 너무 기뻐하며 이것도 밑반찬과 함께 가정에 배달해 주자며 얼굴에 화색이 돈다.

반찬 만드는 일은 월요일 오전에 진행이 되지만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는 일은 올해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숙 씨(57세 · 남구 용현1동)와 총무 김인수 씨(51세 · 남구 주안5동)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남구에서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아줌마 특유의 ‘짚순이’ 정신을 발휘해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로 준비한다. 하지만 한 번에 쓸 수 있는 재료비는 예산액인 17만원을 훌쩍 넘어서기 일쑤다. 이렇게 초과되는 비용은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 몸으로, 힘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서 기꺼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원한 가정이 한 해에 3천3백 여 세대에 이른다.

“어느 어르신은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또 어느 학생은 곱게 편지를 접어 감사하다는 인



1·2·3 썰고, 다듬고, 무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한 손길이 분주하다. 4·5 폐식용유를 모아 재활용비누를 만들고 수익금은 반찬만들기에 사용한다.

사를 전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작은 힘이지만 봉사하는 기쁨을 느끼죠” 이정숙 회장의 말이다.

부곡경로당 작업장에 들어서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식용유통과 맞닥뜨리게 된다. 바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재활용비누를 만들기 위한 원료들이다. 자원봉사대가 만든 재활용비누는 인기가 좋아서 남구에서 장터가 열릴 때면 불티나게 팔려 나가기도 하고, 한번 사용한 사람들이 알음알음 찾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은 또 고스란히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을 만들어 주는 일에 쓰인다.

남구여성자원봉사대의 봉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화요일에는 서 너명의 회원이 사랑병원에서 도서대출 자원봉사를 한다. 책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일일이 병실마다 밀고 다니면서 입원환자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반납을 받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또 96년부터 수요일과 금요일에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을 돕는다. 얼마 전에는 도립동의 농가에 가서 고추밭을 매는 봉사를 하기도 했고, 지난 가을에는 강화군 삼산면의 한 과수원에서 배 봉지 씌우기 봉사를 하기도 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와 수해지역 복구, 각종 행사 지원 등 ‘어디선가 누군가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정보만 얻으면 달려가는 아줌마 부대들이다.

이렇게 해온 자원봉사가 올해로 15년을 맞았다. 4, 50대 여성들이 집에만 있으면 자주 아프고 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힘닿는 대로 남을 돕고 사는 ‘아줌마부대’야말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정정애 · 사진_ 김정식



숨은 자원 봉사자 격려합니다

우리는 숨은 자원봉사자를 분기별로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이번에는 개인 부문에서 김영순, 전복림, 이호지 씨를 각각 선정했다. 김영순 씨는 10년동안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각종 행사보조 등의 봉사를 해 왔으며, 전복림 씨는 무료급식소를 3년 6개월동안 운영해 왔다. 또한 이호지 씨는 게이트볼 지도와 경로당 배식 등의 자원봉사를 10년동안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단체부문에서는 남구여성자원봉사대를 비롯해 6년동안 밑반찬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해온 연수구 자원봉사대와, 110명의 인원이 3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등에 빵을 지원해 온 제과점협회 남동구 지부가 각각 선정됐다.





물처럼... 세월처럼 기다림을 배우는 사찰

사찰로 접어드는 길은 호젓했다. 상수리 나무가 뺨곡이 들어찬 오솔길에서 김영미 씨·조웅기(서구 봉수초 5년)군 모자는 데이트라도 하듯 손을 잡고 느릿느릿 걸었다. 햇살이 나뭇잎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한 5분 쯤이나 걸었을까. 영종도 백운산 기슭, 한무리의 접시꽃이 소박하게 피어있는 용궁사 안마당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이름 모를 산새소리, 간간히 들리는 노스님의 헛기침소리, 목탁소리...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산사(山寺)는 한 여름 더위를 고요로 이겨내고 있었다.

옥돌 부처 모셨다는 사찰

“웅기야, ‘용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안내를 맡은 문화유산해설사 이정희 선생님이 웅기에게 넌지시 물었다. “바다요.” “그래, 용왕님이 계신다는 곳...”

1천 3백년 전이니 아주 먼 옛날, 바닷가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어부가 작약도 근처에 그물을 쳤는데, 세 번이나 연거푸 돌이 나오더라. 하도 이상해 그 돌을 건져 보니 옥으로 만든 부처였다. 그 부처를 모신 절이 바로 용궁사라는 얘기이다. 옥돌부처는 지금 온데간데 없다. 일제시대 때 없어졌다는 설도 있고 도난을 당했다는 설도 있지만, 말그대로 설(說)일 따름이다.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뒤 백운사, 혹은 구담사라고 불리던 절이 용궁사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철종 5년(1854년), 흥선대원군이 이 사찰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후이다. 사찰에 전해내려오는 전설을 들은 대원군이 용궁에서 얻은 부처를 모신 곳이니 용궁사(龍宮寺)라 하는 것이 좋겠다며 자신이 직접 쓴 글씨로 편액을 만들어 요사채에 걸어두었다는 것이다.

용궁사에는 관음전, 요사채, 용황각, 칠성각 그리고 11미터 높이의 미륵불이 아담하게 모여 있다. 이름답지 않게 화려하지 않고 작고 소박한 옛 절이지만 용궁사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는 바로 고종 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과의 인연 때문이란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인데, 그때 왕이 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면 바로 역모로 몰리던 시절이었거든. 그러니 이하응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세도정치의 풍랑 속에서 몸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죽





여 살겠다고 다짐한 거지. 그래서 일부러 바다 건너 외파로 떨어진 이 절을 자주 드나 들면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부처님께 빌며 때를 기다렸어...”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나 레이터처럼 술술 풀어내는 이정희 선생님의 말씀씨에 모두들 빨려 들어갔다.

이 절을 고칠 때 여차하면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로 삼으려고 관음전에 몸 하나 누일 정도로 작은 다락방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해지지만 흔적은 사라지고 없다. 왕이 나오는 명당으로 아버지의 묘자리까지 바꾸는 지극정성을 들인 끝에, 드디어 그는 철종이 서거한 뒤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성공해 대원군이 된다.

오래 전 어느 한 낮, 대원군이 앉아 마을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왕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음직한 요사채 뒷마루에 웅기가 털썩 걸터 앉았다. 반에서 ‘글씨 왕’이라는 엄마의 자랑에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해설사의 설명을 꼼꼼하게 적어내려가는 웅기도 어쨌든 왕은 왕이다.

천년 금슬 이어온 할아버지 할머니 느티나무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에 앉아 좌우로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발견하고 일행은 ‘우와~, 진짜 크다’며 감탄사를 내뿜었다. 바로 이 절의 명물, 할아버지 할머니 느티나무이다. 이 절의 나이와 엇비슷 하리라 추정되는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신비해보이는 외형에 걸맞게 전설이 흘러내려 온다.

옛날 할아버지 나무가 젊었던 시절, 나뭇가지가 이상하게도 자꾸 할머니 나무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들이 용향각의 약수물을 마신 뒤 할아버지나무에게 절을 하고 비니 아기를 갖게 되었더라는 것이다. 봄이 되면 두 느티나무는 금슬 좋은 부부처럼 황갈색 꽃을 함께 피운다. 나무 주변에 둘러쳐진 울타리 근처엔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은 돌탑이 수없이 세워져 있다.



1 천년 금슬의 느티나무 2 용궁사 전경 3 원종 스님께 '나마스떼'라며 합장하는 법을 배우고... 4 꼼꼼히 적어 내려가는 '글씨 왕' 웅기 5 문화유산해설사 이정희 선생님의 구수한 설명이 이어지고... 6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비는 조용기군과 엄마 김영미씨

웅기는 돌탑에 하나둘 작은 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웅기야, 너 뭐 빌었어?” 해설사선생님이 묻자 ‘아들이 너무 잘생겨 고민’이라는 엄마는 “조금 못생기게 해주세요라고 빌어.”라며 농처럼 거든다. 장차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웅기는 “게임왕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요사채 뒷걸로 걸어 올라가 관음전 주변을 서성이다가 미륵불상 앞에서 주지인 원종스님과 마주쳤다. 관음전 처마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가 싶더니 햇빛 부서지는 것 같은 맑은 소리를 냈다. 스님은 뒷짐을 진 채 “1969년 적성 스님이 시주를 받아 건립했는데 높이가 무려 11미터나 된다”고 미륵불의 내력을 설명했다. 그리곤 웅기에게 ‘당신에게 의지합니다’란 뜻을 가진 ‘나마스떼’라는 인도말로 합장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절마당을 향해 총총히 걸어내려 가셨다.

관음전에서 또 하나 놓치지 않고 봐야 할 것은 바로 구한말 이름난 서예가 었다는 김규진 선생의 글씨라고 강조하는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일행은 스님의 뒤를 따라 약수터 쪽으로 걸어내려갔다. 요 며칠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맹렬했다. 꿀꺽꿀꺽, 한 바가지를 눈깜짝할 새에 털어놓은 웅기는 손으로 쓰윽 입주위를 닦은 뒤 ‘맛있다’고 속엿말을 한다.

목을 축인 일행이 떠난 약수터 물받이 한쪽 귀퉁이엔 누가 썼는지 모를 글귀 한 줄이 용궁사를 지키고 있다. ‘물은 옛물이 아니고 세월도 흐른다. 물과 세월은 흘러 어디로 가고 나그네 또한 흘러 어디로 가냐...’

글 _ 박상영 · 사진 _ 김성환



한 걸음 더 | 양주성 금속비

만년되어도 못잊을 공덕 기리며...

용궁사와 5분 남짓 떨어진 마을 한쪽에는 한 무리의 비석군이 자리잡고 있다. 동민관 바로 옆에 모여 있는 이들 14기의 비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양주성 금속비이다.

옛날에는 그 고을의 수령이 정치를 잘하고 떠나면 마을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공덕비를 세워주곤 했다. 이곳에 있는 비석들 대개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의무적으로 세워주었으리라 짐작되고 있다. 하지만 ‘양주성 금속비’만은 진정한 마음이 담긴 공덕비라 전해진다.

비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문에는 ‘고종 12년(1875년)에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해 초지진을 일격하고 돌아가는 길에 영종진을 포격, 상륙해 진을 점령하는 바람에 관아건물이 불에 탔다. 조정에서는 인천부를 방어영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양주성을 영종첨절제사로 임명했고 양주성은 진사를 복구해 방비를 튼튼히 하면서 좋은 정치를 베풀었다. 그가 떠나자 주민들이 늦그릇을 모아 이 비를 세웠다’고 쓰여있다. 높이가 91cm, 폭이 31cm, 두께 3cm의 이 비석 안에는 萬世不忘(만세불망)이라 쓰여있다.



매콤 달콤 시원~ 면발에 녹아있는 역사와 문화

후룩룩... 더위를 말아먹자. 무더운 여름, 자칫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에 간절히 생각나는 것은 시원한 국수.

점심에는 별식으로, 출출한 밤에는 야식으로, 국수 가락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다.

음식은 사람이 꼬이는 곳에서 전파되고 발전한다.

개항이 되자마자 인천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새로운 음식이 탄생되기도 하고 유입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음식이 냉면, 자장면, 쫄면이다. 이들 면발에는 인천 특유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있다.

냉면 이북에서 '남하' 한 냉면은 인천에서 활짝 꽃 피웠다. 인천은 일제강점기에 쌀 거래장인 미두취인소가 설립되면서 사람과 돈이 넘쳐났다. 시내 곳곳에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근대식 외식업소의 등장은 인천이 서울보다 앞섰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에 설렁탕과 장국밥을 파는 집은 흔했지만 아직 냉면 국물을 맛보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인천 곳곳에는 창호지를 오려만든 냉면집 깃발들이 골목마다 나부꼈다.

인천냉면은 지금의 용동 마루턱에 자리잡고 있던 평양관(平壤館)이 원조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답동 성당 옆의 사정옥(寺町屋)과 배다리 너머에 있던 금곡루(金谷樓) 등이 한때 이름을 날린 냉면집들이다.

인천의 냉면집은 직접 먹으러 오는 손님도 많았지만 주문이 더 많았다.

고일 선생의 <인천석금>과 신태범 박사의 <인천한세기>를 보면 미

두취인소 직원들이 점심에 냉면을 한끼번에 스무 그릇 이상

시키곤 했다. 그러면 배달꾼은 냉면그릇을 얹은 긴 목판

을 어깨에 멘 채 자전거를 타고 손살같이 달려갔다.

마치 서커스를 하듯 달리는 배달꾼들이 나타나면

행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진풍경을 감상하곤 했다.

오늘날의 '철가방' 이 봐도 경탄할 만한 곡예배달

이었다.

한때는 서울 한량들이 경인선 열차를 타고 인천

으로 '냉면여행' 을 오기도 했고 심지어 명동이나

종로까지 자전거로 냉면을 배달했다는 믿기지 않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

는 '전설' 도 전해온다. 더러 경인열차 차장 너머로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을 줄지어 가는 냉면배달 자전거 행렬을 보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증언' 도 있다.

한동안 인천의 냉면은 사람들의 입맛에서 멀어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인천 특유의 냉면 맛이 구미를 당기기 시작하고 있다. 세숫대야 냉면으로 잘 알려진 화평동 냉면은 1980년대 초반 동인천역 부근 화평철교에서 옛 인천극장 쪽 언덕길에 하나둘씩 문을 연 것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열대여섯 곳 정도의 냉면집이 모여 냉면집 단지를 이루고 있다.

화평동 냉면의 명성은 일단 그 양에서 비롯되었다. 물 20 정도는 족히 담을 수 있는 냉면그릇은 언뜻 보면 세숫대야와 비슷하다. 여기에 가득 말아주는 냉면의 양은 일반 냉면집의 3~4배에 달한다. 그것도 모자라 냉면사리를 원하는 만큼 무한정 공짜로 준다.

화평동 냉면은 양뿐 아니라 맛도 뛰어나다. 특유의 얼큰하고 시원한 맛은 이 곳만의 비법으로 만든 고추장 양념에서 나온다. 오이·무·열무 외에 깨를 많이 쓰는 것도 특징이다. 고추장의 매콤함과 깨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특유의 맛이다. 아주 추운 겨울철을 제외하고 냉면 그릇에 담겨 나오는 주먹만한 얼음덩어리는 보기만 해도 몸을 얼게 만든다. 기존의 함흥냉면이나 평양냉면과 달리 화평동냉면 국물에 매료된 사람들로 인해 세숫대야냉면은 서서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인천 특유의 또 다른 냉면은 섬냉면이다. 이 냉면은 주인의 출신지에 따라 웅진냉면, 사곶냉면, 황해냉면 등으로도 불린다. 이 냉면은 면이 투박하고 육수를 부어마시는 게 평안도식 냉면을 많이 닮았다. 그러나 맛은 조금 다르다. 섬에서 자란 메밀의 향기가 육지의 그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구수한 향기에 달착지근한 느낌이 혀에 감돈다.

특이한 점은 식초와 겨자 뿐 아니라 백령도의 으름 특산물인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맞춘다. 타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묘한 맛이 혀에 감돈다. 분명한 것은 시원하고, 비리다는 것. 섬 냉면에는 그렇게 진한 바다냄새가 담겨져 있다.

맛집 정보 _ 섬 냉면집 / 백령도 진촌리에 있는 사곶냉면(836-0559), 옛 시민회관 건너편 골목길에 있는 웅진냉면(875-0410), 남동구 구월동 낙원교회 근처 백령도 메밀냉면(468-8856) 모래내시장 건너편 골목 황해 손모밀냉면(464-8349), 남부세무서 앞 백령사곶 메밀냉면(469-1645)



사진 김정식



자장면

중구 북성동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흔히 청관(淸館)이라고 불린다. 이는 ‘청나라 관청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인천에 중국인들이 거주하게 된 것은 인천이 개항하기 전 해인 1882년부터이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조선정부의 요청에 따라 40여명의 군역상인을 동반한 군대를 파견한다. 공식적으로 청나라 상인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이듬해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국지계가 설정되고 북성동 일대 5,000여평 부지에 화교거주지가 형성되고 청국영사관이 문을 열면서 자치지역을 만들어 나갔다. 그 동네의 이름은 양국의 친선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선린동(善隣洞)이라고 불렸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될 때까지 화교의 수는 점점 늘어 3천 명에 이르고 거주지역은 경동 싸리재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대륙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산둥지방에 소요가 일자 중국인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황해를 건너 인천으로 다시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막노동꾼인 쿨리(苦力·coolie)들이 상당 수 끼어 있어 부두노동자로 생활했다.

이즈음에 탄생한 것이 자장면이다. 그들은 볶은 춘장(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먹었다. 그것이 오늘날 자장면의 기원이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자장면의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한 음식점은 1905년 개업한 ‘공화춘’이다. 지금은 문을 닫고 간판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긴 채 빈 건물로 남아있지만 청관거리 중국집들은 대개 공화춘 출신 주방장들이 전통을 이어갔다. 공화춘의 변창에 힘입어 화교들은 중화루, 동흥루 등을 잇달아 개업, 인천은 청요리의 본산으로 자리잡는다.

자장은 작장(炸醬)에서 유래한다. 작장은 장을 볶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춘장으로 부르는 새카만 자장은 산둥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밀가루장(면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장면이 본격적인 서민의 먹거리로 자리 잡은 시기는 1960년대. ‘메이드 인 인천’ 자장면은 라면, 비빔밥과 더불어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요리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자장면의 하루 소비량은 800만 그릇에 달한다. 내년엔 자장면의 원조 인천에서 ‘자장면 탄생 100주년’ 축제가 열린다.



쫄면

쫄면은 대한민국 어느 분식집에 가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쫄면의 맛은 새콤달콤한 고추장 맛이다. 그 매운 맛이 잃어버린 여름 입맛을 되살려준다. 고추장과 함께 콩나물, 당근, 깻잎, 상추 등 갖은 야채를 비벼먹기 때문에 국수치고는 영양가도 높다.

일반 국수나 냉면과 달리 누르스름하고 쫄깃쫄깃한 쫄면은 구전(口傳)에 의하면 중구 경동에 있던 광신제면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냉면을 만들다가 실수로 굵은 면이 만들어져 나왔는데 이를 분식점에 보여주니 의외로 반응이 괜찮아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되었다고 전해진다.

태어난 곳은 경동이지만 쫄면이 메뉴판에 정식으로 등재된 곳은 중구 인현동 옛 축현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의 분식점 골목이다. 처음 쫄면을 요리해 내놓았던 분식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딱히 어느 집에서 시작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학생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너도나도 그 음식을 따라 만들었다”고 이 일대 음식점 주인들은 회상한다. 70년대 ‘떡쇠·명물당·맛나당’ 등 이 일대에만 무려 20~30여 곳의 분식점이 모여 있던 골목에서 ‘쫄면’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고 알개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으면서 주 메뉴로 자리잡게 되었다.

쫄면을 동네 음식에서 전국적인 먹거리로 발전시킨 곳은 신포우리만두. 1971년 동구 송현시장에서 3평짜리 분식집으로 출발한 신포우리만두는 테이블 2개를 놓고 호떡, 순대와 함께 연탄화덕에 솥을 걸고 만두를 찌서 팔았다. 손맛은 금방 소문이 났고 늘 손님이 붐볐다. 77년에 가게를 12평으로 넓혀 중구 신포시장에 ‘우리만두’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이때부터 쫄깃쫄깃한 쫄면도 함께 팔기 시작했다.

이후 가족들이 릴레이식으로 시내 곳곳에 신포우리만두 분점을 내기 시작했고 체인점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 현재 ‘신포우리만두’라는 간판을 단 체인점은 전국적으로 200여개. 인천이 만든 쫄면은 이제 종로, 강남 그리고 부산은 물론 LA의 한인타운에서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새콤매콤하고 쫄깃한 쫄면이 세계의 식탁을 정복할 날도 머지 않았다

글 _ 유동현 · 사진 _ 김성환



맛집 정보 _ 북성동 차이나타운 외의 전통 중국집들 / 신일반점 (882-1812 옛 시립병원 건너편), 진흥관(875-1664·주안사거리 골목) 연중반점(422-0791 석바위 사거리)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여덟 번째 사람

웃음을 잘 웃는 골동품 극장 여사장

탁경란 씨

여사장은 웃음을 잘 웃는다. 남자가 하기도 썩 쉽지 않을 것 같은 극장의 사장이어서 성격도 좀 껌지고 얼마쯤은 오만스러운 데다가, 얼마쯤은 또 때도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유리창만큼인지, 거길 통과해서 부스러지고 있는 햇살만큼인지 눈이 부신 웃음을 아주 잘 웃는 크고 검은 눈동자와, 거기에 여배우처럼 희고 예쁘고 흰칠하고 구김살이 없이 세련된 용모와 밝은 음성, 그런 것들을 가졌다. 그래서 사장이라는 호칭이 그녀에게 와서는 차라리 화사하게 들리는지 모른다.

탁경란(卓慶蘭) 사장. 방금 전에 사십을 넘었다는 이 젊은 미인 여사장이 바로 인천에서 아니, 한국에서도 제일 오래되었을 골동품 극장, 애관극장(愛館劇場)의 사장이다. 애관극장의 뿌리를 살펴보면 협률사(協律社)라는 최초의 극장에 가 닿는다. 그 역사만도 120년을 넘는다. 부산 출신 부호 정치국(丁致國)이 1800년대 말, 인천에 와서 사업을 벌이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창고를 개조해 극장을 꾸몄는데 그 극장이 협률사이다. 이 극장이 후에 축항사(築港舍)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1915년 무렵 다시 애관(愛館)으로 개명되었다.

아무튼 늙고 낡은 극장을 요 얼마 전 '별천지'로 바꾸어 놓은 게 이 여사장이다. 그러면서 아주 좁고 길게 계단을 만들고 그 맨 끝 위에 사장실을 차렸다. 이렇게 별천지 맨 위에 방을 가진 주인공이 이런 여사장인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요즘 식으로 5개 영화관이 한데 합쳐진 복합 상영관의 대장이다. 계단을 그렇게 꾸민 것은 아마 그림을 했던 여사장의 어떤 상상력 때문일지 모른다. 평범한 게 싫은 그런 생각이 자기 방으로 이르는 통로를 이처럼 좁게 꺾이면서 느리고 길게 만들었을 것이다.

“주말마다 방콕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 극장 좀 돌아보시라고요. 얼마나 시원하고,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방에 걸려 있는 달력 속의 꽃 그림. 여사장을 난으로 치자면 틀림없이 양란(洋蘭)에 가까운데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면 이 여름, 하늘나리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망초꽃 같게도 보인다. 또 시로 말한다면 영관 없는 박인환(朴寅煥)의 「목마와 숙녀」같은 분위기이면서 다시 찬찬히 읽어 보면 이번에는 백석(白石)의 ‘폭폭’ 눈 내리는 밤, 그 ‘나타샤’ 같기도 하고 「統營」에 나오는 ‘천희(千姬)’의 느낌도 든다. ‘방콕’은 자기를 찾아간 어떤 사람처럼 주말의 한가(閑暇)를 ‘방에만 콕 박혀 보내는 딱한 인종(人種)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며 또 웃는다.

그런 웃음 뒤의 표정을 보면 마음 안에 여러 명의 짓궂은 장난꾼이 들어앉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숏보기의 명랑함과 순박함을 듬뿍 가지고 있는 ‘이쁜 중년’이다. 열정과 밝음과 언제 누구와도 쉽사리 길항(拮抗)하지 않을 것 같은 둥그스름한 마음. 천연함. 이것이 다 타고 난 복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루어 자득(自得)한 것인지.

“학교요? 미대 나왔어요. 그림, 동양화 전공했어요. 아주 열심히, 열심히 그림만 그린 걸요. 졸업 후에는 용동 큰 우물계에서 「이화미술학원」이라는 화실도 했고요. 이대(梨大) 나왔거든요. 저를 보고 이쁘다고 하시지만 쫓아오는 남학생 하나 없었어요. 더군다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똥똥했었는걸요. 참, 저 김치도 잘 담가요. 쌈 좋아하고, 보리밥을 열무김치에 비벼 먹는 거…”

말을 듣고 있으면 이 여사장이 양란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고, 다른 ‘첫사랑’ 하나 만들지 못하고 청춘 시절을 보낸, 숏보기 망초꽃으로 보이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의과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한번에 빠져 결혼을 했고, 연년생 두 아들과 딸도 하나 낳고, 남편 따라 미국에도 몇 년 갔다 오고, 이제 애관극장 사장이 되었고.

“언제 설령탕 한번 살게요. 저, 설령탕도 참 좋아하거든요.”

165cm라는 데도 하늘처럼 늘씬한 여자. 배우가 되었으면 너끈히 한몫해 냈을 서양형(西洋形) 여사장의 순토속적인 입맛 때문에 듣는 사람도 문득 배가 고파진다.

“죽발도 잘 먹지만 술은 단 한 방울도 못 마셔요.”

거기에 또 재봉질과 뜨개질을 좋아하고,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꽃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묻지도 않은 사랑을 한다. 그뿐인가. 매일 아침 식구들에게 꼬박꼬박 더운밥을 먹게 하고, 퇴근 시간은 6시 반 이고, 집이 있는 서울 어디로 스스로 차 몰고 가고, 그렇게 어느새 4년째 극장 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틀즈의 「노란 잠수함」을 좋아할지 어떨지. 혹시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까. 향흔녘에 유리창 밖을 본 적이 있을까. 베란다에는 방울토마토를 심었을까. 그리고 이미륵(李彌勒)의 「압록강…」은 읽었는지. 커피를 연거푸 두 잔이나 마실 만큼 비 오는 날은 몸이 저릿저릿해지는지. 정말 여사장은 달빛의 이름이 무엇인지, 낙엽은 또 땅 위에 구르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까. 초록 플란넬 셔츠에



달린 고동색 단추, 뿔테 안경, 낡은 일기장 같은,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있을까. 저렇게 배의 옆구리에 와 부딪는 밤물결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을까.

이 여사장이 앉아 있는 위치를 따져 보면 극장 2층, 옛날 영사실 옆의 객석이 있던 곳쯤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새로 한 층을 더 올렸을 것이다. 거기가 2층 그대로라면 그곳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안개 낀 추억의 자리다. 1966년. 2층 영사실 바로 그 옆 자리에서 애송이 프레시맨은 초연(初戀)의 여학생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신성일, 이순재, 그리고 남정임이 나오는 영화 「초연(初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쪽 용동 농인사 쪽에서 담을 넘기도 했던 추억의 극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 연극자가 직접 출연해 연기를 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진 유일한 극장의 자랑, 그리고 아버지에서 오빠로, 오빠에서 여사장으로 세 부자녀가 극장을 맡아 온 내력, 영사실에 숨어 들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같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었다는 사춘기 극장 집 딸의 행운 따위를 또 설 새 없이 늘어놓는다.

“아버지, 나 여사장 될 거야. 나 혼수 필요 없어요. 극장만 주면 돼요.”

“도둑년.”

말이 씨가 되었는지, 처녀 시절 아버지께 했던 응석대로 정말 극장 사장이 되었다. 애관만은 지켜야 한다는 평소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 돈도 처박아 땅도 더 사고, 능란하게 수단도 부리고 해서 늙고 낡은 극장을 최신식 복합관으로 꾸몄다. 차를 마시고 쉴 수도 있는 무슨 별천지 사교장처럼 호사스럽게 꾸며 놓았다. 의사 남편의 후원이 그야말로 크고 든든했다.

“저는 이 방에 거의 앉아 있지 않아요. 내려가서 현관에서 손님들 오시는 것도 보고 접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뵈 수 있어요. 사장이라도 저 높은 사람 아녜요.”

이 글에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가. 온통 생기 투성이 여사장이 조금 늙은 곳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아니 확실히 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 새」를 자주 부르는 것이 그 증거다. 분홍 매니큐어를 하고 물방울 같은 귀고리를 단 것을 보아도 그렇다. 장마가 질척거리는데 여사장은 백석의 「統營」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넋날엔 統制使가 있었다는 낡은 港口의 처녀들에겐 넋날이 가지 않은 千姬라는 이름이 많다/…/저문 6월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방동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가 나렸다.”

글 _ 김윤식(시인) · 사진 _ 김보섭(사진작가)



“학교에서 일하며 실무경험 익혀요”

60년 전통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정을 산업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것으로 직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전문 능력을 습득하고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각 과별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와 산학협력을 맺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것입니다. 자동화기계과에서는 기계 부품을 생산하고, 전기과에서는 컨트롤 패널의 조립 파트, 건축과에서는 CAD 건축설계 파트, 자동차과에서는 자동차 경정비 파트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학교 기업의 장점은 산학협동

학교 기업의 장점은 바로 산학 협동이 아닐까 합니다. 학교에서는 기업체에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학생들은 현장 경험을 익히고 기술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 받을 수 있고 학교는 수익금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니 이게 바로 일석삼조 아닐까요?

학교 기업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먼저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학과에서는 사업 시작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은 위원회에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실습시설, 기술수준, 제품수익률,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능성, 마케팅계획, 생산계획, A/S 방법, 관련 기업체와 협약체결, 동종 업체와의 갈등 해결 방안 등 10가지를 검토해 심의를 한 후 학교기업 운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타시도의 실업계 학교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답니다. 물론 그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틀을 잡아가는 단계지만 우리 학교의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어른들중에서 실업계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업계 학교 학생들도 대학 진학에 관심이 많으며,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인문계와 실업계의 차이는 인문계가 좀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실업계에서는 공부와 함께 자기의 전공 분야에 정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닐까요? 인기공 파이팅!!~~ 고등학생들 파이팅!! ~~

글 · 사진 _ 권혁철(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 · 제4기 청소년 웹진MOO 학생기자)



약물 · 식사 · 운동, 삼박자를 골고루

글 _ 김기영 (자애내과의원 원장 · 529-1002)

대한당뇨병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60대의 평균 당뇨발병률은 10%지만 60대 이상만을 놓고 보면 50%, 즉 2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한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 인구의 10%가 넘는 500만 명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당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들 가운데 치료를 받는 사람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당뇨병은 합병증 유형이 다양해 치료가 까다롭다. 합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인보다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말한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는 제1형, 인슐린 생산량이 필요량에 못미치는데다 체내 인슐린 저항성(체지방이 인슐린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심한 제2형으로 나뉜다. 특히 노인성 당뇨병이라고도 불리는 제2형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체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이 베타세포가 서서히 지쳐가면서 인슐린 생산량이 줄어드는게 원인이다. 열량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기능을 멈춰 혈당을 높이기 때문.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혈당변화가 일어나고 신장, 눈, 신경계나 말초혈관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제2형(노인성) 당뇨병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증상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및 고인슐린, 지방대사 이상, 동맥경화증 등이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혈당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검사결과 중성지방이 150mg/dl이상, HDL콜레스테롤이 남자40mg/dl · 여자50mg/dl이하, 고혈압으로 수축기 130mmHg이상, 이완기 85mmHg이상, 공복(8시간 이상)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평소 혈당이 200mg/dl이상인 사람은 당뇨병 초기 단계로 봐야 한다.

치료는 약물요법,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한다. 약물요법은 혈당조절을 위해, 식사요법은 혈당조절과 인슐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영양소 균형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공급하는 것. 운동요법은 혈당조절과 비만해소를 돕는다. 간혹 약물의 부작용을 걱정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베타세포의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어 오히려 합병증 발병률만 높이게 되므로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 당뇨병환자, 건강하게 여름나려면?

1. 탈수를 막는다.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당량이 높아져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당분이 많은 음료수 대신 시원한 냉수나 끓여 식힌 보리차를 마신다.
2. 운동은 꾸준히 한다.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하루 30분 정도, 주3회 이상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나 걷기를 한다.
3. 발 관리는 철저히 한다. 당뇨병 환자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무좀 등에 잘 걸린다. 발을 깨끗이 씻고 건조하게 말린 후 로션을 발라준다. 상처가 나면 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괴저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변이나 물가에서는 절대 맨발로 다니지 않는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학전문가들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 440-2073



60년 전통 자랑하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60여년에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자동화기계, 전자기계, 자동차, 전기, 건축, 토목과 등 6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학교의 역사와 함께한 관악부와 올해 55주년을 맞는 럭비부가 있습니다.

나만의 수영장

“엄마~~~~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씩씩하게 외치며 대문을 들어서는 우리 아이. 아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신이 나게 뛰어 놀았는지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땀에 젖어 머리에서는 땀내가 나고 얼굴과 목 주변에는 흙장난을 하던 손으로 땀을 닦아서인지 검은 때 국물 자국이 이곳 저곳에 선명하게 남은 채 빙그레 웃으며 제 품으로 뛰어와 안겼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그리고 신나게 뛰어 놀다 들어오는 아이를 위해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미리 보리차를 한 주전자 끓여서는 그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플라스틱 대야에 담궜 놓습니다.

그럼 아이가 올 시간에 딱 맞춰 아이가 목욕할 대야 물은 어느 정도 미지근해 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는 그 물에서 물놀이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어느 정도 물놀이를 신나게 한 아이에게 간식으로 시원한 수박이나 참외 등 제철 과일을 챙겨주면 아이는 맛나게 잘 먹은 뒤 제 무릎을 베게 삼아 곤하게 낮잠을 자곤 합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에 난 보송보송한 솜털을 볼 때마다 전 큰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때요? 저희 아이의 여름 나기 방법. 여름 나기 방법이라고 해서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수박 한쪽씩 나눠먹으며 이 무더운 여름과 당당하게 맞서 시원하게 지내면 어떨까요?

김금순 (남구 주안2동)



강의실에서 영어공부와 여름나기

무더위가 온 도시를 열기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던 작년 여름. 딸아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무료로 영어공부를 시켜주었다. 나는 주저없이 신청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딸아이의 영어공부를 봐주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영어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다.

드디어 첫 번 째 영어 수업시간. 늦지 않게 도착하느라 집안일도 대충 끝내고 학원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엄마들이 강의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동네 아저씨 같이 생긴 학원 원장님께서 3개월 동안 우리들의 영어강의를 맡을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다.

발음부터 시작하는 영어 공부는 너무 재미있었다. 어렵듯이 알고 있던 영어공부가 이제서야 머리 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었다. 또한 내 또래 엄마들과의 인생 공부, 영어공부는 그동안 집에만 묻혀 살고 있던 내게는 신선한 충격이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비록 녹음이 우거진 산과,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의 여름휴가는 아니었지만, 작년 여름 학원 강의실에서 보낸 3개월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 간 듯 배움에 목말라 했던 나의 뜨거운 열정을 고스란히 녹여내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시원한 바닷가나 계곡, 산으로 가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한 방법이지만, 진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푹 빠져보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자기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여름나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가을쯤에는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김미숙 (계양구 작전1동)



비료포대 비치 볼

큰 아이가 학교에서 송도수영장 간다고 입장으로 삼천 원, 수영복, 물안경, 비치볼, 김밥을 준비해 갔다. 여름이면 수영장만큼 좋은 놀이가 또 있오라.

나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학교와 집이 멀어 여름이면 땀병에 걸여가기가

너무 힘든 거리였다. 나무그늘 밑에 쉬어도 잠시뿐, 무더위를 이길 수 없어 입은 채로 시냇물에 풍덩 뛰어들어 더운 열기를 식혔고 책 가방이 젖을까봐 머리위로 들고 다니곤 했다. 옷이 마르면 다시 뛰어들고 돌멩이에 찢어 피가 나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땀을 찢어 바르면 피가 멈췄으니까 말이다.

학교가 일찍 마치는 토요일은 동네 오빠, 언니, 동생들 모두 연못에 모였다. 지금이야 수영복도 있지만 그때는 입은 옷이 바로 수영복였다. 알록달록한 비치 볼이 아닌 비료포대에 바람을 잔뜩 불어 넣어 손으로 입구를 잡고 그 위에 타고는 다리로 풍덩거리며 놀았다. 수영장이 따로 없다. 물이 있는 곳에서 수영을 했고, 수영하다 지루하면 바위를 들춰 가져, 고동을 잡았다. 추우면 바위 위에 몸을 기

대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온 몸이 따뜻해 온돌방이 따로 없다. 옷도 금새 마르니 말이다.

수영을 하지 못해도 비료포대 하나면 충분했다. 바람이 빠지면 또 다시 불어넣고 그 재미에 한낮의 더위도 잊은 채 여름은 그렇게 멀어져 갔다. 수영이라야 고작 개구리헤엄 정도지만 여름이면 어김없이 모여 그렇게 여름을 보냈었다. 고향을 떠난 지 25년이 훌쩍 지났지만 어릴 적 비료포대 타고 물장구치던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

도춘희 (연수구 옥련동)



검소하고 멋진 피서법

우리집은 그 흔한 에어컨을 아직도 장만하지 못했다. 못했대기 보다 안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왜냐면 일년 중 가장 무더운 여름날 며칠을 위해서 결코 싸지도 않은 에어컨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맘이 내키지 않았다. 그리고 더운날 에어컨 가동을 한다 해도 맘 놓고 켜 놓는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바들바들 떨면서 전기값 때문에 맘 놓고 가동 못하는 현실이 내 맘 한 구석에는 사치품에 가깝다는 생각이 앞서곤 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나만의 평범한 피서법은 그야말로 소박하고 돈 안드는 방법이다. 우리집은 아파트 9층이므로 앞 베란다 창문과 맞은 편의 창문을 열어 놓으면 앞뒤로 통하여 부는 자연바람이 그 어떤 선풍기 바람 못지않게 시원하다. 베란다에는 시원한 물을 몇 바가지 뿌려 놓으면 그 시원함이 더해지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거실에 펴놓은 대나무 돗자리에 대자로 누워 있노라면 그 어떤 피서도 부럽지 않다. 게다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수박 한 조각이 있다면 정말로 금상첨화다. 이게 바로 평범하지만 가장 검소하고 멋진 피서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홍승호 (연수구 동춘동)

해비타트와 함께 했던 제일 시원했던 여름나기

가장 재미있었던 여름나기는 2001년 지미카터 work project라는 이름 하에 해비타트 집짓기 열풍이 부는 때였다. 남편이 군산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서 휴가를 군산에 와서 보내라고 초청해 호텔 가족실에 묵게 되었다. 지금의 군산 해비타트 이사장인 영광여고 이사장님이 호텔은 불편하다고 손님들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해 놓고 1주일을 보내게 해 주셨다. 냉장고에 먹을 것을 잔뜩 사다 넣어주시고 콘도처럼 세탁기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에어컨이 있어 제일 시원한 여름을 보냈었다.

그런데 작은아이가 세탁소에서 옷걸이에 눈이 굵혀 한바탕 소동을 피웠었고 아파트 같은 동에서는 아이들끼리 집에 있다가 불이 나서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작업을 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머무는 아파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아들이 여섯살, 일곱살이라 힘들게 하는 때였기에 너무 지치기 쉬운 여름이었는데 1주일 동안의 휴가는 제일 시원했던 여름나기였다.

더군다나 해비타트 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로 큰 시누가 속한 팀들이 워십댄스를 하게 돼 시댁식구들이 다 모여 아파트 원룸에서 함께 잤었다. 시원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초청해주었던 군산관광호텔과 영광여고 이사장이자 군산 해비타트 이사장인 안아실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남궁은혜 (남구 주안5동)



더위 해소 음식

녹녹한 장마철, 후덥지근한 무더위. 지친 가족들을 위해 활력과 가족단합을 시킬 수 있는 저만의 여름나기가 있습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의 관심이 많은 요즘, 신선한 음식이 첫 번째로 가장 최고이겠죠. 우리집 건강한 여름나기 식단을 소개할게요. 갈증해소와 더위에 좋은 새콤한 오미자를 끓여 차게 해서 항상 냉장고에 준비해둡니다. 꿀을 타서 먹도록 하면 여름 음료로는 그만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시간에는 항상 특별식을 준비 합니다. 직접 콩을 갈아 내린 ‘콩국수’, 해산물 국물에 국수기계에서 직접 뽑은 녹차국수를 넣어 얼음을 띄우면 ‘해산물 녹차 얼음 칼국수’ 가 됩니다. 속까지 시원해요. 디저트로呢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를 살짝 얼려서 갈아 천연 생과일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저희 가족들은 특히 국수종류를 좋아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웃음이 곧 주부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오징어와 조개를 듬뿍넣은 파전과 동동주를 준비해야 겠어요.

자명원 (서구 검암동)

내 생애 최고로 무더웠던 여름

이제 8월이면 우리 셋째가 태어난지 벌써 일년이 된다. 작년 여름이 시작 될 무렵 나는 임신 7개월이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배가 떨어질 것 같다며 다니는 것도 조심시키셨을 정도로 셋째라 그런지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둘째를 제왕절개로 낳았지만 셋째는 자연분만으로 낳고 싶어 전문병원을 찾아갔다. 의사선생님께서 날마다 한 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체중이 더 이상 늘지 않으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나와 태아를 위해 자연분만을 결심하고 당기는 식욕을 애써 참으며 체중을 조절해 나갔다. 운동은 우리집 옆에 있는 공원을 아침, 저녁으로 스무 바퀴씩 걸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배 전체에 땀띠가 솟아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런데 8개월 끝 무렵 부터 저녁때면 진통처럼 아파오기 시작했다. 나는 운동이 힘들어서 배가 뭉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9분 간격으로 아파왔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조산 위험이 있다고 이대로 진통이 오면 폐가 성숙되지 않은 태아에게 아주 위험 할 수 있다고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진통이 가라앉아 퇴원을

했지만 분만 할 때까지 시간 맞춰 약을 먹어야 했다.

다들 피서를 떠나고, 시댁 식구마저 바닷가로 떠났지만 우리 가족은 나 때문에 꼼짝없이 찜통같은 집에서 여름과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말복이 지나고 36주 이틀이 되던 날 더이상 참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께 낳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더 이상 약으로 진통을 막으며, 눕기도 힘든 몸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37주가 되던 날 드디어 분만대에 올라갔다. 땀으로 범벅 된 내 얼굴을 닦아주며 남편은 내손을 분만 끝날 때까지 꼭 잡아주었다. '으앙' 우렁찬 소리를 내며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나한테 머물러 있던 더위가 한순간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

그때 태어난 우리 막내가 두 눈 찡긍거리며 예쁜 짓을 하면 우리가 족 모두 너무 예뻐 뒤로 넘어간다. 우리가족 울여름은 에어컨 없이도 막내 재롱을 보며 더위를 가볍게 날려 버릴 것이다. 이보다 더 시원한 여름나기가 또 있을까!

김보경 (부평구 부개3동)

다음달 테마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얹힌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결혼식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께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8월 20일 까지 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역시 산은 좋아

여기가 어디냐구요?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는 계곡입니다. 힘은 들어도 계곡 물에 발도 담그고 정상에 올라 야호 한번 하면 발의 물집까지도 아픈지 모른답니다.

김형구 (부평구 부평1동)



아기는 피서중

지난 여름 예천 할머니댁에 갔답니다. 집 앞 큰 냇가에서 모두들 물속에 들어가 더위를 식혔죠. 우리 아가도 난생처음 피서를 즐겼답니다. 햇볕에 타서 까씨가 되었네요.

윤미숙 (연수구 동춘2동)



여모, 여진이의 여름나기

우리 아이들의 여름 나기는 집 앞 마당에 커다란 고무통을 놓고 아침에 받아 놓은 물이 햇볕을 받아 미지근해 질 때쯤 들어가서 신나게 물장난 하며 노는 것입니다. 집과 가까워서 좋고, 안전해서 걱정할 염려도 없고, 또 돈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이랍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 물놀이는 앞마당으로 찼했어요.
구본승 (강화군 길상면)



갯벌에서

아들내미랑 영흥도에 갔지요. 얼마나 좋아 하던지... 더운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바다가 최고죠.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 보면 어느새 더위 싹 가시죠. 가까운 바다로 떠나자구요^^
김상욱 (부평구 부개1동)



가발이냐구요? 아~뇨!

언뜻 보면 요즘 스티커 사진 찍을 때 많이 쓰는 가발 같지만, 수영모자랍니다. 벌써 15년전 청학풀장으로 피서를 갔을 때 엄마가 씌워주신 수영모자예요. 저 귀엽죠?

남궁윤실 (연수구 옥련동)

화려한 분수 쇼

어느날 대공원에 놀러 갔는데 아들이 갑자기 물줄기를 보더니 뛰어들어 분수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은 시원하겠지만 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걸 생각하면!! 흑흑!! 그래도 아들이 시원하다고 하니 저도 시원해지네요.

김영진 (계양구 오류동)

"역시 야외에서 먹는 밥맛은 꿀맛이야!"

강원도 홍천으로 식구들끼리 캠핑을 갔을 때 사진이에요. 집에서는 밥을 먹려면 그렇게 고생했던 아이가 밥을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네요. 계곡물이 좋아서 그랬는지,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돌아왔답니다. 모기 때문에 연약한 피부가 고생하긴 했지만, 즐거운 여름이었답니다.

양유진 (서구 검암동)



해외이민 관련사진 및 유물자료 모집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에서는 ‘인천이민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1902년 인천항에서 시작된 근대 해외이민 관련 사진 및 유물자료를 모집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인천의 옛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집된 자료들은 2006년 월미도에 개관 예정인 ‘이민사박물관’에 전시됨으로써 이민역사의 중심 센터가 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인천을 널리 알리고 상호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집 대상 자료

- 1900년대 ~ 1970년대까지의 이민 관련 사진 및 유물
- 당시 생활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보상

- 기증사진이나 유물자료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함.

- 이민사 박물관 자료전시에 제공자의 이름을 명시함.
- 자료의 규모에 따라서는 전시실을 따로 마련함.
- 사진 및 자료의 원본은 복사 후 돌려드립니다.

•모집기간 : 2004년 7월 ~ 연중 계속
문의 _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440-3497, 3498 담당 : 강덕우, 강옥엽)

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신입생 모집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 미술교육과정 : 미술치료(1단계, 3단계, 4단계), 서양화(수채화, 유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 서예교실, 사진영상, 플라워디자인과 전례 꽃꽂이
- 전문지도사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

사(초급, 중급), 특수아동지도사, 독서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초급, 중급)

- 모집기간 : 7월 1일(목) ~ 8월 31일(화)
- 교육기간 : 9월 1일(화) ~ 12월 11일(토) 15주간

문의 _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무과 (438-8131~4)

인하대학교 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 시청각, 소설창작, 댄스스포츠, 영어(영어회화, Native Speaker English), 알리앙스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컴맹넷맹탈출, 컴퓨터(엑셀, 홈페이지작성), 플라워샵창업, 플라워디자인전문가, 피부미용최고지도사, 미용최고전문가
- **자격취득과정** : 공인중개사자격취득, 부동산경매컨설턴트, 심리상담2급자격연수, 노인교육지도사, 선물포장전문가, 어린이영어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한문지도사,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 **특별과정** :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어린이영어연극지도자, 영재교사양성, 수학영재교사양성, 창의성리더십컨설턴트양성
- **평생교육정보센터** : 노인교육무료강좌, 사랑방학교(검정고시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
- **시민대학** : 여성교양문화, 여성사회참여, 증권지도자, 에버그린아카데미,
- **원서접수** : 8월 31일(화) 까지
- **원서·입학안내서는 사회교육관(정문 옆) 및 정문·후문 수위실에서 24시간 배부**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3×4Cm) 1매 ※전화접수도 가능함.

문의 _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 (860-8292~6 http://life.inha.ac.kr)

미추홀문화회관 수강생 모집

인천예총에서 운영하는 미추홀문화회관에서 미술, 무용, 악기 등 순수 예술프로그램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무료특별기획강좌(3개월)** : 조화를 이용한 꽃장식 & 선물포장, 아해! 그렇구나(아동미술치료), 서예 교실, 문인화, 홈스케치, 어린이 서예교실(한문/한글), 어린이 풍물, 하모니카, 인천 연극 활성화를 위한 연극워크샵, 어린이신체표현놀이(마임),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사진촬영 교실, 일러 화화, 중국어 회화
- **정규 유료강좌** : 공예 (조형·생활공예, 섬유패션, 한지, 화훼), 미술, 노래·악기·국악, 어학·연극, 건강·스포츠, 창의력·학습개발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강좌기간** : 9월 6일 ~ 11월 27일
- **접수기간** : 8월 2일 ~ 9월 11일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구 인천여고)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www.mchart.co.kr)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비브리오 패혈증이란?

비브리오 패혈증은 오염된 해산물을 날 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일종의 식중독입니다.

•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균이란?

- 원인균 : 비브리오 볼니피쿠스
- 발생시기 : 5월~11월
- 발생수온 : 해수온도 18~20 이상(최적 30~37)

• 감염경로

- 오염된 어패류의 생식
- 상처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 접촉

• 취약계층

- 만성 질환자, 당뇨병환자, 알콜중독자 등에 주로 발생하며 연령이 높은 계층 및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 간질환자 등이 취약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 발병증상

- 오한, 발열, 피로, 설사, 구토
- 상처부위의 부종, 홍반, 수포와 괴사동반
- 증상이 심한 환자는 사망 할 수 있음

• 예방법

- 만성질환자, 면역기능이 약한 노약자, 어린이는 어패류 생식 삼가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금지
-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 저온저장, 가열처리 또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 접객업소의 요리시 위생취급필요(청결유지, 저온, 가열등)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회를 드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문의 _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 (881-6065)

터미널시네마 <분신사바> <신부수업>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 1관에서는 8월 5일부터 <분신사바>를, 2관에서는 <신부수업>을 각각 상영합니다. 상영 프로그램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관람요금** : 일반 6천원, 학생 5천원

• 주차편의

- 남측·서측의 터미널 직영 주차장 : 50%할인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증 소지자 무료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돌 보 기 |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

시청을 출입하는 문화일보 이상원 기자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라는 논문을 썼다.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시각과는 또 다른 기자로서의 시각으로 현장을 훑으면서 얻은 갖가지 생생한 자료와 설문을 통해 한편의 논문을 엮었다. 이를 정리해본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다국적기업들과 지식 정보·물류·관광 분야의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동북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 잠재력이 큰 항만시설, 탄탄한 제조업 기반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지역 본부, 지식 정보업체의 생산이나 연구 단지, 물류업체의 물류 센터 등의 입지 조건들을 어느 정도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청이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투자 유치와 홍보 전략에는 개선할 점이 아직 많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맞는 독자적인 투자 유치 모델과 전략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시와 인천청의 투자 유치 전략의 수립과 궤도 수정에 도움을 줄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인천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외국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의향, 인천시가 제공하는 투자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설문 결과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 인천시와 인천청이 제공하는 투자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불만이 높고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 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길 바라며 국내 동종 업계와의 원만한 유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설문 결과를 근거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시 ㉠국 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조직 체제 구비 ㉡국 인 기업에게 유익한 시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외국인 기업 정보 교류센터 겸 고충처리센터의 설립 ㉢국 인 기업의 인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단체 회원 가입 허용 및 국내 업체와의 교류 강화 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연수문화원 제11기 문화학교 강좌

- 강좌기간 : 9월 1일~11월 23일
 - 신규회원 접수 : 8. 16(월) ~ 8. 31(화) 10:00~17:00
 - 접수장소 및 방법 : 연수문화원 사무국 (연수구청 7층) 방문접수
 - 문화원 특별지원강좌
 - 어린이 문화강좌 : 조물조물 칼라믹스, 종이접기, 영어동화, 생각을 키워주는 글쓰기, 어린이한자교실
 - 생활강좌 : 시청작, 서각, 사물놀이, 수지침, 생활한자,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점검
 - 자녀지도강좌 : 자녀글쓰기 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실, 행복한 가정과 자녀의 인성지도를 위한 한국적 부모 역할 훈련, 자녀지도를 위한 삼국유사 해설
 - 어학강좌 : 영어회화(초, 중급), 중국어회화(초, 중급), 일본어회화(초급)
 - 미술강좌 : 한국화, 서예, 소묘&수채화, 수채화, 성인을 위한 알파벳, 답사를 통해 배우는 한국미술사여행
- 접수 및 문의 _ 연수문화원 (821-6229 / 821-6239, www.yeonsu.or.kr)

자원봉사관리자 수강생 모집

인천대학교 인천시민대학에서는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관리할 전문 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과 자원봉사지도자(코디네이터) 과정을 무료로 개설해 운영합니다.

- 자원봉사자 : 9월 7일부터 15주 2회 강좌

- 자격 : 자원봉사 500시간 이상 경력자, 자원봉사지도자(코디네이터)교육 수료자로 200시간 경력자, 교사, 사회복지사로 자원봉사 담당 경력자, 기타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원봉사지도자(코디네이터) : 주간반 9월 6일부터, 주말반 9월 11일부터
 - 자격 : 자원봉사 200시간 이상 경력자, 자원봉사지도자 교육 수료자로서 100시간 인상 경력자, 교사, 사회복지사로서 자원봉사 담당 경력자, 기타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모집기간 : 기별 개강일 까지 모집 (단 1기는 9.6까지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 이력서(자원봉사 경력기록 포함), 수강신청서(대학 소정 양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재직증명서), 사진 3매(반명함판)
 - 수강료 : 무료(단, 자격 응시료 35,000원, 자격증 발급료 15,000원 별도)
 - 신청방법 : 인천시민대학교학과(한미은행본점9층) 내방 접수 및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 문의 _ 인천시민대학 교학과 (441-5394~5, 770-8601~3)

인천시민대학 학생 모집

- 일반교육과정
 - 구월동캠퍼스 : 정책교육(인천학 및 인천시정 등 3과정), 예술교육(사진 예술 등 4과정), 전문교육(꽃방경영 및 창업 등 15개 과정), 교양교육(생활영어 등 5개 과정), 건강교육(요

- 가 등 2개 과정)
 - 인천대학교캠퍼스 : 건강교육과정(골프지도자)
 - 학점은행제 : 화예학전공, 아동미술학전공, 서양화 전공, 체육학 전공, 교양 등
 - 등록기간 : 8. 2(월) ~ 8. 30(월)
 - 등록방법 : 은행 온라인 및 학교방문 등록 ※상기 교육과정은 학사운영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_ 인천대학교 부속 인천시민대학 교학과 (441-5394~5(구월동캠퍼스), 770-8601~3(대학캠퍼스))

인하대병원 대장암 무료 건강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무료건강공개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제는 대장암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8월 31일(화) 15:00 ~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사 : 외과 김경래 교수
 - 기타 : 참석자에게 무료 주차권 발급
- 문의 _ 인하대병원 홍보과(890-2641)

호스피스센터 자원봉사자 교육합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센터는 현재 9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150여명의 봉사자가 인천의 각 종합병원 및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로 봉사할 분을 위한 교육이 열립니다.

- 교육일시 : 9월 6일 ~11월 15일 매주

-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수강료 : 무료 (교재비 등 10,000원 별도)
 - 교육대상 및 인원 : 만 18세 이상 100명 선착순
 - 강사 : 김태식 박사, 이운재 교수, 김미자 선교사, 박남규 목사, 최광영 목사, 박덕규 봉사자 등
- 문의 _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센터(구 인천 살롬호스피스 434-7007)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중구보건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인천간호사회가 주최하는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 일시 : 9월 16일(목) 13:00~18:00
- 장소 : 파라다이스 호텔(구 올림포스호텔)
- 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모유수유아로 올해 2월 17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출

- 생한 건강한 아기
 - 참가신청 : 8월 16일 ~ 8월 28일 (우체국 소인 인칭)
 - 시상내역(참가아중 22명)
 - 대상 1명 : 금 7돈
 - 최우수상 3명 : 금 5돈
 - 우수상 6명 : 금 2돈
 - 장려상 12명 : 금 1돈 (상황에 따라 상 명칭 및 시상내역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 각구 보건소, 인천간호사회
- 문의 _ 중구 보건소 (760-7660), 인천간호사회 (441-2925)

비즈공예 무료 공개강좌 열립니다

우리시 여성복지관(본관)에서는 비즈공예(목걸이, 귀걸이세트 만들기)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 : 8월 10일(화)14:00~16:00
 - 교육장소 : 여성복지관(본관) 2층 세미나실
 - 모집일시 및 방법 : 7월 19부터 40명 선착순 접수
 - 모집대상 : 18세 이상 인천시 관내거주 여성
 - 접수처 : 여성복지관 2층 사무실
 - 수강료 : 무료 (재료비 1만원 별도)
 - 교육내용 : 목걸이, 귀걸이 세트 제작
- 문의 _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425-1362. 440-6558 (http://women-center.incheon.go.kr/))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1일부터 장기·중증 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노동부 지원 국비 무료교육생 모집합니다

흥익디지털디자인직업전문학교에서는 노동부지원으로 국비무료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모집직종	교육기간	인원	모집대상	제출서류	비 고
캐릭터애니메이션	8.10~2005.1.9	30명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사람	반명함판사진 2매, 신분증, 우체국통장, 직업훈련상담확인서	교육에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다면 교육 접수 가능
플래시애니메이션	8.24~2005.1.23	30명			

- 모집기간 : 교육개시후 1주일까지
- 교육특전 : 훈련비, 교재비 전액 무료 / 훈련수당 지급 (월 10만원) / 국가기술자격증 의무교육 = 확실한 취업을 위한 재취업센터 운영(리쿠르트, 잡이스)

문의 _ 흥익디지털디자인직업전문학교 교육행정실 (515-2222, www.ihdc.or.kr)

인천직업전문학교 교육생 모집합니다

노동부 산하 국가출연교육기관인 인천직업전문학교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산업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시 입학과정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 입학자격 :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 (단 15세 이상)
- 전형방법 : 면접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본인통장사본(기업은행) 및 사진2장
- 원서접수 방법 : 방문접수 및 학교홈페이지(vt-incheon,hrdkorea.or.kr) 접수
- 교육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가 부담 (무료) / 원룸식 기숙사 및 식사 무료제공 /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및 통학생 교통비 5만원 지급 / 취업알선 및 국가기술응시자격 부여

문의 _ 인천직업전문학교 교무부 (450-0310~4)

사업 고민
짜~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 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6월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은 보험료 체납후 진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료, 업무상 부상진료,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국고 지원을 받은 상병, 요양기관의 착오·중복청구분 등은 본인부담액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

공영주차장 37곳 ‘일요일 무료개방’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내 노상 주차장 25곳 등 모두 37곳의 주차장을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수요가 많은 경인전철 주안역, 동암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주차장 15곳은 요금을 계속 받습니다.

• **일요일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 중구 : 한국마사회, 제일은행, 국제화재, 산업은행, 크라운볼링장, 범문화재 씨맨스, 주택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인천종합어시장, 율미공원, 송

- 의아구장, 옛 원예농협
- 동구 : 송림로터리, 중앙시장, 시설관리공단
- 남구 : 제물포역, 여성복지회관, 한미약국, 옛 남구청, 제물포역 북광장-남광장, 간석역 남광장
- 남동구 : 소래포구, 구산로, 소래대교, 창대상가
- 부평구 : 부평시장, 롯데백화점, 부흥로터리, 대우자동차, 청천복개지2·3차, 백운역, 백운역북광장, 코아타운

문의 _ 인천시설관리공단(579-2723)

화 폭 에 담 긴 인 천 풍 경 ⑮ | 노희정 <홍예문>



<홍예문> 캔버스에 유채, 90.9×72.7cm, 1987

노희정 화백의 작업세계는 자연과 주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가고자 하는 그의 작업관과 연관이 있다. 말하자면 예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적 수단일 뿐이며, 작가로서의 자세 역시 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노화백의 30여 년간 작품활동은 늘 인천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1991년 인천미협 지부장으로 재임 시에는 ‘인천 현대미술초대전’을 발족시켰고, 서울 등 다른 지역이나 해외 교류전에도 힘을 쏟았다. 이런 점이 인정되어 그는 한국예총 예술문화상(91), 인천시 문화상(94)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언뜻 보기에 평면화되어 있는 그의 그림은 자연스러운 색채 원근법과 적절한 색의 사용 그리고 세부표현에 집착하지 않는 대범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평면화돼 있는 대상의 조형적 변화를 위하여 스크래칭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무채색조와 원색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작업들은 현대적 감각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인천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정경인 홍예문을 그린 것으로 노화백 특유의 감각적 필치와 회화적 실험성이 교차하는 개성적 필치를 보여준다.

글 _ 이정모(인천대학교 겸임교수/미술평론가)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이제 365일 금지됩니다

언제든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365일 언제든지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은 제공받는 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선심관공을 시켜주는 것 등을 말하며, 공약의 공백이 없고 약속을 떠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면 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장, 구청장, 군수, 경찰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하여 그 배우자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

향우회·동친회·동향회·부녀회·노인회·산악회 등 각종 단체나 체육대회·지역축제 개최를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공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제 속·부리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과태료 50배 부과

물품·음식물·사적·관광 기타를 제공하거나 관공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속회·부리금품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까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합니다.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1588-3939)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